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2.01+02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2년 1월 5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디자인 하나로애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CoverStory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

말산업은 FTA시대 놓어준 살릴 신활력산업  
**경마, 건전 레저스포츠로 탈바꿈할 것**

머릿글 석동연 경기도 국제관계 자문대사

1·2월 프로그램

Issue&Seminar

- 한비아 UN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 김주환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원불교 캄보디아 바탐방 교당 봉불식

경영카툰

CEO 미디어스피치

Hot&Issue 위(We)대한 토크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회원&연구원소식

2011 KHDN 송년의 밤

아카데미 뉴스

2011 교육현황

Special Focus 소통아카데미 2기

명사초청특강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 대표

발행인편지

회원탈퇴



# 5천만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감동의 명저!

## 2012년 희망·비전·미래를 열어갑니다

★★★★★  
2011년 종합 베스트셀러 2위

★★★★★  
전국서점연합·유통사·인터넷서점  
대형서점 집계 종합 베스트 1위

★★★★★  
교보문고 역사상 인문서 최초 연간  
종합 베스트 1위



★★★★★  
간행물윤리위원회 이달의 읽을만한 책

★★★★★  
SERI CEO 필독서 선정

★★★★★  
KBS 책 읽는 밤 테마도서

★★★★★  
최단기 100만 부 돌파

전세계가 주목한 단 한 권의 책

#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대 20년 연속 최고 명강의

마이클 샌델  
이창신 옮김 | 404쪽 | 15,000원

“정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망할수록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 전세계가 존경하는 정치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의 세계경제 대전망, 그리고 위기탈출 대제안!

공황과 번영, 불황 그리고 제4의 시대

#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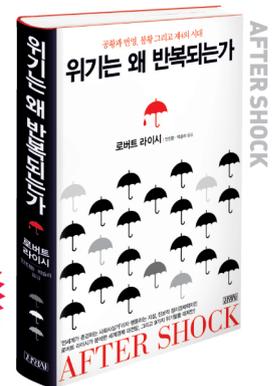
최상위 1%가 전체 부의 24%를 독식한 위기의 세계경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중산층을 위한 경제·복지 혜택을 늘려라!

‘비판적 지성’ 로버트 라이시의 ‘중산층 살리기’ 제안! 상류층과 중산층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을 늘리는 혁신적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로버트 라이시 | 안진환·박슬라 옮김 | 240쪽 | 13,000원

2011  
한국능률협회  
필독서 선정

2011  
시사인 선정  
올해의 책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Tel: 031)955-3200 www.gimmyoung.com

김영사

# 새해 벽두에 다시 중국을 생각하며

2012년 임진년이 밝았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설렘 속에 덕담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곤 한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다지 편치 않다. 무엇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극히 불안정하며 불확실하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정치 상황도 매우 동적이다.

한국에서는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를 놓고 건곤일척의 승부가 벌어진다. 핵안보정상회의, 여수EXPO 등 국가적 대사가 있지만 선거바람에 묻혀 지나갈 것이 걱정된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元年)으로 삼겠다고 오랫동안 공언해 왔다.

김정일 위원장의 급사는 미처 권력 승계를 마치지 못한 29세의 '청년대장' 김정은에게 커다란 도전이다. 김정은은 강성대국임을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제3차 핵실험이나 대남 도발 등 위기 조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에는 한국, 미국, 러시아 등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며, 중국은 올 가을 당 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남북한과 주변 4강의 리더십 변화는 우리 외교안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난 12월 12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대원을 중국어민이 흉기로 살해했다. 우리 국민들은 이를 국가의 존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고 흥분한 시민은 차로 대사관에 돌진하기까지 했다. 중국 국기를 불태우고 계란을 던졌다. 중국상품 불매운동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마음이야 모를 바 아니지만 과격한 시위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아니나 다를까 베이징의 우리 대사관에 쇠구슬이 날아와 두꺼운 방탄유리를 깨뜨리고, 한국상품 불매, 한국방문 중단 얘기들이 나왔다. 과격한 시위는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이다.

2010년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인해 한중관계에도 비바람이 몰아쳤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감싸고 도는 중국의 행태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후에도 중국은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한중관계가 격상되었지만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또다시

실감하였다.

예전에는 미국과 잘 지내면 되었다.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무섭게 커버린 중국을 바로 이웃에 두고 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며, 힘을 자랑하는 중국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2011년 한중무역량은 2,400억 달러(중국 통계기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안보 분야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찾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임무는 막중하고 길은 멀지만 중국과 상생하는 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G2시대를 사는 우리의 과제이며 고민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급사는 한반도를 불확실성의 구름으로 덮게 하였다. 올해 우리는 앞으로 5년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민족통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조타수를 뽑게 된다. 전능한 지도자가 하늘에서 강림할 리는 없다. 이 땅의 지도자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지를 우리 모두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김재에**



● 석동연 대사

1954년 생으로 30여 년간의 외교관 생활 중 오랫동안 중국 외교현장을 지켜온 대표적인 중국통이다. 베이징대사관과 홍콩총영사관에서 정무공사와 총영사 등으로 8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중국인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쌓았으며, 중국인들과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한중우호대사이다. 그가 홍콩총영사를 이임할 즈음에 중국외교부 대표는 5페이지의 장문 서한으로 석 총영사의 외교활동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인민일보(중국 국내판)는 한중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그의 기고문을 이례적으로 게재하였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신년하례회>

### ■ 살아있는 전쟁영웅이 한반도에 전하는 희망의 리더십

제1722회 1월 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스파이어볼룸  
채명신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총재 / 前 주월 한국군사령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사로 한반도가 떠들썩하다. 북한은 김정은 부위원장을 장의위원회 명단 맨 앞에 이름을 올리면서 그의 측근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앞당겨질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북한 정부의 본격적인 김정은 띄우기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미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인정하고 있고, 미국도 김정은 체제를 인정할 공산이 크다. 이에 우리의 대북정책도 신중한 태도 아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치하를 거쳐 6.25전쟁, 월남전 파병에 이르기까지 군대가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그 중심에는 험난한 전장에서 나라를 지키는 전쟁 리더들이 있다. '영원한 아전사나이' 채명신 장군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평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며, 만약 준비가 없다면 전쟁이라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말로 국방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급사로 급박해진 한반도 정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2년 신년하례회에서는 1965년 파월 한국군사령관으로 한국군을 진두지휘하며 월남전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채명신 장군을 초빙했다. 김정일 사후 한반도 정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황해도 출신으로 국군 최초로 김일성을 만났던 사연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겪으면서 느낀 위기 속 리더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북한 체제 변화에 따른 대응책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육군사관학교 졸업(5기) | 육군대학 졸업 | 미국 육군지휘참모대학 졸업 | 제38사단장, 제5사단장 |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 주월 한국군사령관 | 제2군사령관, 1972년 중장 예편 | 驍 스웨덴, 그리스, 브라질 특명전권 대사 | 미국 하버드대, UC버클리대 연구원 | 일본 추오대학, 케이오대학 연구원 |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회장 | (사)6.25참전유공자회 회장

<상훈> 태극무공훈장, 을지훈장 4개, 충무훈장 6개, 화랑훈장 5개, 대통령표창 2회, 미국 레조훈장, 베트남 최고훈장 외

<저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선을 넘고 넘어, 베트남전쟁과 나

### ■ 정치인 김종인은 누구인가?

- 한나라당의 대혁신과 박근혜 정치의 시작, 한국정치의 미래

제1723회 1월 1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최근 정치계는 '안철수 바람'에 이어 현 정부의 심판 성격인 대선을 겨냥한 당 쇄신 바람이 거세다. 한나라당 역시 지난해 6.2지방선거와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의 쓴 잔을 만회할 당 쇄신의 극약처방으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집한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박 비대위원장은 당내인사 4인, 외부인사 6인으로 구성된 비대위 인선안을 발표했다. '창조적 파괴', '자기반성', '2040세대와 소통' 등을 모토로 한 비대위원들의 취임 일성은 한나라당 궤도 수정을 짐작케 한다. 그 중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안철수 바람을 이끈 핵심 멘토이자 노태우 정부 시절 보건사회부 장관과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학문과 정치인생 내내 시장만능주의와 싸워온 인물이다. 시장주의 색채가 강했던 한나라당이 그를 비대위원으로 받아들인 것을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다.

김 이사장은 1987년 개헌 당시,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린 헌법 119조 2항을 끝까지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 조항은 '적정 소득 분배', '경제주체간의 조화', '경제 민주화' 등을 목표로 국가의 시장개입을 가능케 한 것으로 '김종인 조항'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일찍부터 박근혜 위원장의 정치·경제 멘토로 잘 알려져 있는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을 초빙하여 한나라당의 10인 비대위를 통한 대혁신과 박근혜 정치의 시작, 그리고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외대 독일어학과 졸업 | 獨 윈스턴대 경제학 석·박사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제11~12, 14, 17대 국회의원 | 국민은행 이사장 | 보건사회부 장관 |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 건국대 경제학 석좌교수 |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 |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상훈> 보국훈장 천수장, 청조근조훈장, 2001 한국외대 외대인상 특별공헌상, 독일 일등십자공로훈장

## ■ 밥상이 의사다

제1724회 1월 1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허봉수 EBM통합의학센터 원장

음식만 잘 먹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이 바로 보약이기 때문이다. 보양식도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체질에 따른 섭생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다. 자신의 체질을 바로 알고 체질에 맞게,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 올바른 식생활이다.

허봉수 원장의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을 제대로 선택해 섭취하자'는 '섭생 원리'의 기본은 사상체질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람의 체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음식을 섭취하는 섭생요법은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지는 자연요법의 한 갈래이다.

채식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채식을 강요하면 부작용이 더 커진다. 육식도 마찬가지다. 휘발유를 넣는 자동차에 경유를 넣는 것과 같다. 그런 식생활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음식은 몸과 마음이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섭생 중심의 식생활로 화학과 영양학, 농학, 한의학 등을 융합한 통합의학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허봉수 원장을 초빙하여 음식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의 연구결과와 함께 자기체질에 맞는 식생활의 지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고려대 응용영양학과 졸업 | 경희대 식품영양학 박사 | 1980년  
섭생연구 시작 | 복지연합신문사 이사 | 한국영양학회 대의원 |  
국제통합대체의학협회 상임이사 |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 식품  
치료학 겸임교수 | EBM 오키나와센터 원장  
〈저서〉 내 몸에 맞는 음식궁합, 밥으로 병을 고친다, 약이 되는 체  
질밥상, 밥상이 의사다, 체질 따라 먹는 웰빙 새싹채소, 체  
질섭생학 외

## ■ 꿈을 넘어 꿈을 이룬 개척자, 백제약품 이야기

제1725회 1월 2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박광서 한국경영사상연구원 원장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가난한 집안, 가난한 부모를 원망해 본 일  
이 없고, 세상이나 나라를 원망해 본 일도 없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조차 나는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맘 흘리며  
살았고, 솔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다.”

1946년 백제약품을 설립한 김기운 회장이 고회를 맞아 간행한 〈초당자전〉  
에서 밝힌 인생 소회다. 백제약품과 초당약품을 국내 대표 제약업체로 키  
워온 김기운 회장은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중요시여기는 것으  
로 유명하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가치의 실종과 도덕  
적 해이가 검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되고 있고, 때문에 인간교육이 선행되  
어 인간과 자연, 사랑이 듬뿍 실린 젊은 세대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김 회  
장의 평소 지론이다. 초당학원을 설립하고 인성중심의 초당대학교를 세운  
것도 그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경영으로 이룬 성과를 국가와 사회로 환원  
한다는 그의 경영철학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기업의 창업과 성공과정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는 한국경영사상연구원  
의 박광서 원장은 김기운 회장을 '꿈을 넘어 꿈을 이룬 개척자'로 평가하며  
그의 평전을 쓰기도 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박광서 원장을 초빙하여 제약회사로 벌어들인 돈을 교  
육사업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백제약품 이야기를 통해 기업의 성공  
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 단국대 경제학 석박사 | 순천향대 경제  
학과 교수 | (사)한국경영사학회 부회장 | (사)한국전문경영인  
(CEO)학회 창립, 제2, 3대 회장 | 한국경영사상학회 창립, 회장 |  
한중경상학회 아시아유럽 미래학회 고문  
〈상훈〉내무부장관표창, 중국 연변조선족공상협회 표창  
〈저서〉 한국경제론, 신경영사론, 경제학실사, 신경제사, 세계화와  
현대경제, 한국을 빛내는 CEO 외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창립 37주년 기념포럼>

### ■ 2012년 국내외 정세변화와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 -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제1726회 2월 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스파이어볼룸  
문창국 중앙일보 주필

2012년 세계 각국에서는 권력이동의 향방을 가능할 대통령 선거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3월에는 러시아 대선, 4월에는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실시된다. 대선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올 가을 제18차 중국공산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 부주석에게 권력이 승계되면서 5세대 지도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국내에서는 4월 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가히 '대선의 해', '권력 이양의 해'라 할 만하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는 예외 없이 4대 균열구조인 지역, 이념, 계급, 세대가 리더십을 압도했다. 그러나 3김 퇴장과 정보통신 혁명으로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넘쳐나면서 점차 리더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안철수 서울대 원장은 뚜렷한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나눔의 리더십'을 지녔다는 이유 하나로 '박근혜 대세론'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과연 어떤 리더십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인지 고민해 볼 일이다.

연구원 창립 37주년을 맞는 이번 기념포럼에서는 중앙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언론 외길을 걷고 있는 문창국 중앙일보 주필을 초빙하여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민진 경희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2012년 총선과 대선이 국내외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논의해본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 정치학 석박사 | 중앙일보 사회부, 정치부 기자, 워싱턴특파원 | 중앙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부장 | 중앙일보 미주총국 총국장 | 중앙일보 회계비서실장 겸 전략기획담당 |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 논설주간 상무 | 한국프레스클럽 운영위원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이사장

<상훈>제16회 관훈인론상, 제8회 한국언론대상, 제9회 삼성언론상 외

<저서>한미 갈등의 해부, 워싱턴특파원 귀국보고, 미국은 살아있다

### ■ 초경쟁 환경, 우리 기업의 초일류전략

제1727회 2월 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신동엽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21세기는 초경쟁사회이다. 21세기 기업환경은 20세기와는 다르게 무경계성과 격변성,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는 혁신, 민첩성, 창조성이 필요하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최고경영자가 자사의 강점이 변화된 환경에서 유효한지를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최근의 글로벌 초우량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기업들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초우량 기업들의 침몰은 단순히 금융위기 때문이 아닌,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는 단순히 시기적 착시현상일 뿐 모든 기업이 상시적 생존위기에 있으며 근본적인 변화를 알아야 한다. 연세대 신동엽 교수는 거대 기업들의 침몰이유에 대해서 기업이 가진 약점 때문이 아닌 강점 때문이라고 말한다. 강점을 발전시켜 성공공식(Success Formular)에 익숙해진 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하며 성공의 덫(Success Trap)에 빠지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끊임없이 남보다 앞서 새로운 강점과 경쟁우위를 만들어내는 '상시 창조적 혁신' 경영이 우리 기업의 미래 생존과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신동엽 교수를 초빙하여 21세기 초경쟁 환경에서 국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 경영학 석사 | 美 예일대 경영학 박사 | 연세대 문화예술경영연구센터 센터장, 상남경영원 부원장 | 서울스프링국제실내악축제조직위원회 대표 | 유럽경영대학원 객원교수 |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이사

<상훈>연세대 경영대학 우수강의상, 연세대 우수강의상, 매경이코노미 한국의 경영대가 선정

## ■ 김철중의 생로병사

-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제1728회 2월 1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달드룸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인생에 있어서 생로병사처럼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이 살면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기를 바란다. 인류 역사에서 장수는 항상 중요한 화두였다. 문명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섰고, 국내에도 100세 인구 2천 명 시대가 다가왔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암, 심혈관 질환, 각종 노인성 질병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른 의술도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을 오히려 경계한다. 중요한 것은 장수의 질이다.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늙어도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맑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장수이다.

무병장수의 비결로 많은 의학전문가들은 건강한 정신을 위한 '생활습관'을 강조한다. 인간의 수명은 유전자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졌지만 올바른 섭생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의학전문기자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학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김철중 기자를 초빙하여 건강 장수를 위한 무병장수 실천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고려대 의대 졸업 | 고려대 의학석·박사 | 고려대 신문방송학 석사 | 고려대병원 영상의학과 근무 | 국군청동병원, 국군대구병원 방사선과 근무 | 김 박사의 건강 파일보기, 메디TV 앵커 | 한국에이즈보호재단 이사 | 한국결핵협회 이사 | 한국MSD 컨설팅 위원  
 <상훈> 서울의사협회 2002 골든크로스상, 한국어 의학협회 건강우수기사상, 한국병원협회 Choongwae 기사상, 한국어정신과협회 수훈 훈장, 한국어 암협회 암 기사상 외

## ■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제1729회 2월 2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벨뷰룸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

“열매를 얻은 곳에 씨앗을 뿌려라.” 기업의 사회환원에 대한 인터불고그룹 권영호 회장의 지론이다. 인터불고의 경영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함께 발생한 이익은 그 지역을 위해 투자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경상도의 한 어촌에서 태어난 권 회장은 아버지를 바다에 잃었다. 바다는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어떻게든 바다에서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원양어선을 탔고, 이후 스페인에 정착해 혈값에 구입한 폐선 한 척으로 원양어선을 만들어 큰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권 회장은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생각으로 스페인에 이어 한창 내전 중이던 아프리카 남부 앙골라에 진출해 철저히 지역주민과 공생하는 방법으로 성공기도를 달렸다. 이후 중국 연변의 한인동포들로 선단을 꾸렸고, 20여 년을 함께 해온 그들은 지금도 기관장, 갑판장, 선장으로 진급해 일하고 있다. 그 인연으로 권 회장은 중국에서 대대적인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인터불고의 연간 매출은 1조 원에 달하며, 한국에서의 호텔과 골프 사업 또한 인간중심의 경영철학과 근검절약하고 솔선수범하는 권 회장의 경영마인드로 인해 승승장구 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유럽 최고의 한상'으로 불리는 권영호 회장을 초빙하여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의 기업관과 경영철학, 그리고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동아대 영문과 졸업 | 中 길림대 경제학 박사 | 1980년 인터불고 SA 수산회사 설립 | (재)동영장학재단 설립, 이사장 | 평화통일자문위원 스페인 지회장 | 스페인 한인총연합회 회장 | 제4회 세계한민족 베를린 학술대회장 | 주한 앙골라공화국 명예영사 | 중국 길림대 객좌교수 | 계명대 특임교수 | 경상북도 해외 명예 자문위원 | 대구광역시 경제고문단 위원 |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상훈> 국민훈장 동백장, 스페인 국민훈장, 한국산업경영학회 경영자대상, 중국 정부 '우익상', 금탑산업훈장 외

<저서> 지혜롭게 사는 법, 지중해 미녀 참다랑어, 민족의 항해 밝히는 한민족호 기관장 외

제1718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지난 9년 동안 월드비전의 긴급구호 팀장으로 일했다. 현장에서 하는 일은 이미 작성된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데 멋진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집을 짓는 일을 3~4년 하다 보니 설계도에 결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설계도를 만든 사람은 현장의 사람이 아니거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7년차부터는 투덜거리면서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투덜거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구호정책을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월드비전을 그만두고 미국 보스턴의 터프츠대학교 플래처 스쿨의 인도적 지원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그렇게 1년 만에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지난 10년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다. 그래서 안식년을 내고 꼭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첫 번째가 백두대간 중주였다.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 등줄기를 타고 걸어서 가는 것이다. 주말마다 1박 2일로 하루 12시간을 걸으면 6개월이 걸린다. 12월 완주를 눈앞에 두고 열심히 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중국어 공부다. 한국어만큼 중국어를 잘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난 7개월 동안 중국에 가서 고급 중국어를 배우고 왔다. 이렇게 1년을 안식년으로 보내고 있는데, 지난 10월 갑자기 유엔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 세계지도 한 장으로 바뀐 인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머릿속에 꼭 들어있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세계지도'이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느 나라 지도까지 들어있는가? 아마도 미국, 중국, 일본, 중동 등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라의 지도는 들어있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의 지도도 머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라는 테두리가 우리 집, 우리 회사, 대한민국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무대는 당연히 전 세계이다. 그리고 베이스캠프는 한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시민이다. 나 또한 대한민국의 딸이자 세계시민이다. 여러분들의 머릿속 세계지도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관심과 이해, 사랑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서 세계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세상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계지도 한 장이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이 세계를 무대로 사는 사람이 되길 바라셨고, 그 도구로 세계지도를 택했다. 어릴 적 우리 집에는 어디를 가나 크고 작은 세계지도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그렇게 세계지도를

매일 보니까 세계가 만만하게 보였다. 물론 세상살이가 만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세계는 만만했다. 심지어는 세계를 한 바퀴 도는 일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여기서라도 활개를 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는 정치부 신문기자였는데, 우리와 많이 놀아주지는 못하셨다. 실제로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은 1년에 10일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며칠 안 되는 시간에서 우리와 놀아주는 순간만큼은 뜨겁게 몰두하셨다. 그 순간이 너무나 뜨거워서 아버지가 많이 놀아줬다고 기억하고 있다. 같이 한 시간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있을 때 얼마나 뜨겁게 몰두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의 가치가 나에게까지 잘 전해졌고,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이 내가 꿈꾸는 세상이고, 아버지와 뜨겁게 보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와 뜨겁게 몰두했던 시간의 주체는 당연히 세계지도였다. 1년에 몇 번 일찍 들어오시는 날이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세계지도를 갖고 오라고 하셨다. 그 날은 세계지도를 펴 놓고 나라를 찾게 해서 맞



추면 용돈을 주셨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고 싶은 날에는 어려운 걸 물어보셨다. 가령 아프가니스탄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나라였다. 아버지는 지도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왜 그 나라가 지도에 없는지 이유를 들려주시곤 하셨다.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신 어느 날 아버지께 세계가 다 붙어있으니 나중에 커서 지구를 걸어서 한 바퀴 돌 수 있지 않겠냐고 했더니 무척 기뻐하셨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크면 걸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돌겠다고 했더니 놀라는 모습을 보고 내가 더 놀란 적이 있다. 그 친구들과 나는 한 가지 차이밖에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세계지도가 들어있어서 세계가 만만하고, 나의 무대라고 생각한 것뿐이다.

### 정글의 법칙 - 사랑과 은혜의 법칙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은 무엇일까? 정글의 법칙일까 적자생존일까? 정글에서는 사냥하고 쌓아 놓는 것까지는 잘 가르친다. 그런데 이것을 사냥 못하는 약자, 어린이, 다친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는 잘 모른다.

나도 월드비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은 정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42살, 긴급구호 현장에 들어가면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전거의 양 바퀴가 있듯이 새의 양 날개가 있듯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 사랑과 은혜의 법칙이 있었다.

정글의 법칙은 강자가 약자를 누른다. 자기 세를 과시해야 하고, 사회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약자가 뒤통수를 쳐서 강자가 되면 또 다른 약자를 누른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의 법칙은 강자가 약자를 돌본다. 그리고 약자가 강자가 됐을 때는 다른 약자를 돌보는 릴레이가 계속된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다.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후로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민소득 1만 불일 때까지도 원조를 받았다. 그런데 1991년 한국월드비전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국제구호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희망의 상징이고, 멋진 나라이다. 2001년 10월 긴급구호팀장으로 월드비전에 들어갔는

데, 마침 그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다. 그 뒤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국가에서 후원국으로서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간 적이 있었다. 각국 단체의 대표들이 한 마디씩 하는데, 구호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대표가 나와도 자존심 강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가 말할 차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원금은 액수로는 적은 돈이지만 상징적 의미가 강했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첫인사를 할 때만 해도 그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나라도 50여 년 전 전쟁을 겪었고, 그 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마중물이었다. 우리는 4천만 국민이 힘을 합쳐 그 마중물을 펌프질해서 우리가 쓰고도 남을 물을 만들었다. 그 남은 물을 여러분의 마중물로 가져왔다. 이 마중물로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쓰고도 남을 물이 될 것이고, 그럼 그 때 이 물이 필요한 곳에 가져다주면 그것이 사랑과 은혜의 릴레이가 될 것이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국 사람들은 중재를 잘한다. 내가 중국어를 배우려고 한 이유는 국제구호 분야에서 중국과 서방세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중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에게 우방이다. 그들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우리가 세계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과 은혜의 법칙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사랑과 은혜의 법칙이 가장 선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긴급구호 현장이다.

여러분은 굶어 죽는 아이를 본 적이 있는가? 3초마다 한명 씩 아이들이 죽고 있다. 굶으면 살이 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진다. 그럼 작은 병에도 아이들이 죽는다. 배고픔에 설사를 하면 탈수에 고열이 나는데 그것을 못 버티면 죽는 것이다.

굶어 죽는 아이를 처음 봤을 때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말라워라는 곳에

4년간 가뭄이 지속되었는데, 그곳에 식량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조사하기 위해 갔다. 한 동네에 5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상당수가 2주일 안에 식량이 안 오면 굶어 죽는다고 했다. 6개월 된 아이를 내 품에 안겨 주는데 너무 가벼워서 놓칠 뻔했다. 주먹만 한 얼굴과 원숭이처럼 가는 팔다리



강연을 듣고 있는 이재용 세림상호저축은행 회장



강연을 듣고 있는 탁재용 흥인실업(주) 회장

어떻게 살아있는지 궁금할 정도였다.

조사를 끝내고 돌아가는데 도로에 날리는 먼지가 밀가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다 밀가루가 쌓인 창고를 보고는 분노가 치밀었다. 창고 주인을 찾아가 왜 아이들에게 밀가루를 주지 않는다고 따졌다. 그랬더니 주인은 나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나는 장사꾼이다”라고 했다. 할 말이 없었다.

정글의 법칙에서는 가장 쌀 때 사고 가장 비쌀 때 팔아서 이윤을 최대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창고 주인이 정글의 법칙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법칙까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일이 아프리카의 식량창고에만 일어나는 일일까? 우리들 마음의 창고는 어떤가?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가?

썩 이태석 신부를 소재로 한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다. 톤즈강이 흐르는 수단인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곳 사람들은 울지 않기로 유명하다. 눈물을 흘리면 약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남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이 이태석 신부가 돌아가시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톤즈강에서 목욕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심지어 대소변까지 해결했다. 가족들까지도 이 강에서 똥오줌을 누고, 아이들은 이 물을 마신다.

그들도 그 물이 더러운 줄 안다. 그러나 그것밖에는 마실 물이 없다. 문제는 강물에 기니아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기니아충을 먹으면 대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을 뚫고 나온다. 아이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른다. 그나마 살을 뚫고 나오면 살 수 있지만 머리를 뚫고 나오거나 내장을 뚫고 나오면 죽는다.

이 물을 정수하는데 단돈 10원이면 충분하다. 한 가족이 한 달 동안 먹을 물을 정수하는 돈이 고작 3천 원이다. 여러분 주머니에 3천 원이 있다면 정말 힘이 센 것이다. 어느 한 가족의 생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손과 마음, 에너지, 돈, 열정을 사랑과 은혜의 법칙에 빌려주었으면 좋겠다.

###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라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이다. 여러분의 가슴은 언제 마지막으로 뛰었는가?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무엇이 여러분의 피를 끓게 하는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쏠 것이다. 화살대에는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라고 쓰여 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어떤 것이 가슴을 뛰게 하는지 읽기 바란다.

10년 전에 나도 불화살을 맞았는데, 가슴 속에 박혀 아직도 그 불이 뜨겁게 타고 있다. 10년 전 케냐의 한 의사에게 불화살을 맞았는데, 당시 나는 국제 홍보 업무를 하고 있었다. 세계 일주를 한 뒤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기만 하면 너도나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월드비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그곳이 어떤 기관인지도 몰랐다. 알고 보니 월드비전은 60년 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작은 긴급구호 팀으로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억 명의 지구촌 이웃을 돕는 국제구호개발 NGO였다.

월드비전에서 긴급구호 팀장을 제안했는데, 당시 칼럼을 쓰고 있어서 칼럼도 쓸 겸 현장을 둘러보고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소말리아로 갔다. 정말 열악한 환경의 오지였는데, 미중을 나온 현지인들과 악수를 하려다가 무서워서 '한국인들은 악수를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버렸다. 손을 내미는데 손가락이 없는 사람, 코가 없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들의 몸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있었다. 말로만 듣던 풍토병으로 피부가 망가지는 병에 걸려있었다.

마을의 우물은 마르고 소와 낙타마저도 죽어있었다. 그렇게 마을을 둘러보던 중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선 이동병원을 발견했다. 물이 없는 곳에는 안과질환이 많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했는데, 얼굴을 본 순간 너무나 실망했다.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입이 크고 치아가 큰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런데 10여 분 후 반전이 일어났다. 내 입에서 '멋있다'라는 탄성이 터져 나온 것이다. 그를 지켜본 지 10분 만에 그가 돈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얼굴이 그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멋진 얼굴이라는 것도 알았다. 못생긴 얼굴인데 너무 멋있어 보였다.

그에게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는지 물었더니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돈 버는 곳에만 쓰는 건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긴급구호 현장이라면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불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누군가 나에게 왜 이 일을 하고 있냐고 물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이 일이 내 피를 끓게 하고,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다음에 여러분을 만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냐고 물었을 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멋진 경기를 하는 멋진 CEO들이 됐으면 좋겠다.

### 가진 것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손 가져야

여러분의 손을 보라. 기업을 하는 손, 집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손,



직장에서는 직장을 키우는 손이다. 여러분 어깨에 평생 달려있을 그 손을 어떻게 쓸 생각인가? 어떻게 쓰기를 결심했는가?

나는 이 손을 정글의 법칙에 빌려주지 않을 생각이다. 나는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고 싶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고 싶다. 사랑과 은혜의 법칙에 내 힘을 보태고 싶다. 나는 천주교 신자라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려고 모으는 그 손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따뜻한 마음과 함께 나눠주는 그 손을 훨씬 아름답게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서 멋진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자과'가 되어야 한다. '막 퍼주자', '남 주자'처럼 있는 것을 주는 것이다. 돈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힘을 주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멋진 경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어깨에 달려있을 그 손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는 왜 손이 두 개 인지 알았다. 한 손은 자신을 위하여, 다른 한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김재민**



### 회복탄력성이란 무엇인가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인데, 긍정심리학에서는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즉 인생의 크고 작은 역경, 어려움, 고난을 딛고 튀어 오르는 힘이다. 인생에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항상 있다. 그것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역경과 위기를 딛고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높이 튀어 오르는 긍정의 힘, 내면적인 힘이 회복탄력성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마냥 평탄하다면 그 사람은 큰 성공을 이룰 수 없다. 평탄한 인생은 자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방향성을 알 수 없다. 올라가다가 한 번 떨어져보아야 위가 보이고 방향성이 생기고, 오기가 나면서 올라가야 할 강한 필요성, 즉 파워가 생긴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력은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한다. 역사적 위인들이나 이 시대의 리더들의 공통점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대해졌다는 것이다. 역경은 사람을 튀어 오르게 하는 스프링보드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패를 딛고 튀어 오르는 내면의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문제이다. 바람 빠진 공을 바닥에 떨어트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튀어 오르지 못한다. 그러나 바람을 뺄뺄하게 넣은

공을 떨어트리면 처음보다 더 높이 튀어 오른다. 공에게 있어 추락은 역경이다. 그런데 이 역경과 응전에서 중요한 것은 추락이 아니라 공의 탄력성 여부이다.

하나의 사례를 더 보자. 강풍이 몰아치면 널빤지는 날아가서 깨져버린다. 그런데 그 널빤지 가운데 적당한 구멍을 뚫고 네 귀퉁이에 끈을 묶어서 당기면 연이 되어서 하늘로 날아오른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강풍이 아니라 널빤지의 형태로 상징되는 탄력성이다. 사람도 역경에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고무공'처럼 곧바로 튀어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깨져버리는 '유리공'처럼 좌절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 카우카이 섬과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었다. 1950년대 중반 미국 본토에서 수십 명의 학자들이 하와이 서북쪽의 카우카이 섬으로 몰려왔다. 당시 카우카이는 가난, 범죄, 마약, 도박, 낙태가 만연했고, '이 섬에서 태어나면 불행한 삶을 예약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상의 지옥' 같은 섬이었다.

# 회복탄력성과 소통능력의 리더십



나는 커뮤니케이션학자이다. 커뮤니케이션학에는 크게 두 가지 하위 영역이 있다. 하나는 매스컴, 즉 저널리즘이다. 다른 하나는 휴먼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다. 즉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친해지고, 또 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며, 조직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해야 하고,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해야 하고, 스피치나 토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연구한다.

나는 휴먼 커뮤니케이션 안에서도 소통능력에 대해서 10여 년 간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연히 회복탄력성이라는 영역을 공부하면서 소통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와 회복탄력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의 본질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은 1955년에 태어난 863명의 신생아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작했다. 연구주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가'였다. 18년 후 에이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다. 그는 863명 중에서도 최악의 조건에 놓여 있던 201명을 별도로 추려서 그들의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 중에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16살, 아빠는 19살 때 2.0kg도 안 되는 조숙아로 태어났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는 군대에 끌려갔고, 그가 10살이 되던 해에 엄마는 기출을 해버렸다. 마이클은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다. 할아버지 집에 얹혀살던 마이클은 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조건을 고루 갖춘 마이클은 너무나 성실하고 똑똑하고 매력적인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마이클은 개근상과 우등상을 놓치지 않았다. 운동을 잘 했고 리더십이 뛰어났기에 반장과 회장도 도맡았다. 더욱이 SAT(전미대입시험) 전국 1%에 들면서 UC버클리대 4년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한 상태였다.

워너 박사는 예외적인 결과에 당황하며 연구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이클과 같은 아이들이 하나둘씩 더 발견되었고, 평균 이상으

로 성장한 아이들이 201명 중에서 무려 72명이나 되었다.

워너 박사는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도리어 72명을 다시 집중 조사했다. 연구주제도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을 일으켜 세운 힘은 무엇일까'로 바꾸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녔던 '회복탄력성'의 비밀을 밝혀냈다.

나이가 1:2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자연적 상태에서 회복탄력성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비율이 1:2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회복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건강한 인간관계(Healthy Relationship)'를 맺는 능력도 뛰어나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관계는 흔하게 거론되는 '마당발'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Love & Respect)'에 기반한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카우카이 아이들 72명도 어린 시절에 '무조건 사랑하고 지켜주고 믿어준 언덕 같은 어른'을 적어도 한 명은 가지고 있었다. 마이클의 경우 아빠 엄마가 아닌 할아버지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들은 구박해도 마이클은 끄떡하게 아끼고 사랑했다.

## 사랑과 존중에 기반한 소통능력

그렇다면 '사랑과 존중에 기반한 인간관계'란 무엇일까? <이혼의 수

학)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혼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존 고트만 박사는 “부부는 사랑이 식었을 때가 아니라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 ‘경멸’이 들어왔을 때 이혼한다”고 했다.

그는 한 쌍의 신혼부부에게 2분 동안 일상의 대화를 나누도록 한 후 이를 비디오로 촬영했다. 그리고 비디오를 초단위로 분석해서 자신이 만든 수확공식에 대입했다. 그리고 부부에게 “두 분은 앞으로 5년 뒤 이혼할 확률이 95%이다”라고 결과를 알려줬다. 그가 이혼을 예측한 가장 큰 요인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바로 ‘경멸’이었다. 부부의 일상대화 속에서 단 1~2초라도 경멸의 표정이 보이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정이 보인다면 이혼할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것이다. 결국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존중’이다.

조직에서도 사랑과 존중을 얻는 리더가 진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소통능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소통능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과 존중을 끌어내는 힘’이다. 이것이 설득적이고 리더십이다.

소통능력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다. 말 잘 하고, 글 잘 쓰고, 프레젠테이션을 잘 한다고 소통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소통능력의 일부분인 언어능력일 뿐이다. 설사 늘변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안다면 그것이 뛰어난 소통능력이다.

자기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분야의 지능이 높아야 한다. 예컨대 발레리나는 운동지능, 가수는 음악지능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 분야의 최고 고수가 될

수 없다. 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버드대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이야기한 다중지능이론에서 자기이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높아야 한다. 자기이해지능은 자신의 감정과 충동상태를 잘 인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소통능력의 핵심사항이다. 대인관계지능은 타인의 마음이나 의도를 눈치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다.

축구에서 최고 경지에 오른 박지성 선수는 사실 최고의 운동지능을 가진 선수는 아니었다. 오히려 ‘축구천재’로 불리던 선수들은 따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이해지능, 대인관계지능을 겸비한 박지성처럼 상대방의 호감과 신뢰를 끌어내는 소통능력이 부족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지능과 능력 이전에 인간관계를 맺는 소통능력이 있어야 한다.

### 긍정적 정서가 창의성을 키운다

건강한 인간관계가 회복탄력성과 소통능력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긍정성에 답이 있다’이다. 이와 관련한 3가지의 화두가 있다. 창의성, 내재 동기, 자발성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는 창의성이다. 창의성이라고 해서 늘 새로운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늘 아래 완전한 새로운 것은 없다. 완전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은 상상력이다. 창의성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당당한 주체가 되어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한다.

재미있는 것은 창의성은 IQ나 학력과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전교 1%의 일등급과 30%의 중상위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IQ나 학력이 아니라 긍정적 정서에서 차이가 났다. 1%의 학생들은 시험기간에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진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닥치면 오히려 신명이 난다. 타이거 우즈도 결정적 순간인 마지막 퍼팅 때 기분이 좋아지는 비법을 심리상담사로부터 배웠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직원들이 출근할 때 회사 간판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면 업무성과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엘리스 아이센 코넬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탕을 이용한 보상효과 실험을 통해 긍정적 정서가 창의성을 키워주고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초등학교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하면서 한 그룹은 사탕을 주고 한 그룹은 그냥 문제를 풀게 했다. 그랬더니 사탕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20%만 문제를 풀었고, 사탕을 받은 아이들은 75%가 문제를 풀었다. 사탕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면서 문제를 풀었던 것이다. 비슷한 실험으로 아이들에게 코미디 프로, 수학비디오, 테레사 수녀의 비디오 등 세 가지 비디오를 그룹별로 보여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이 역시 결과는 코미디 프로



강연을 듣고 있는 김석문 신일팜클라스 사장(좌)과 이윤수 KCTC 부회장(우)



강연을 듣고 있는 천석규 천일식품 사장

를 본 아이들이 문제를 가장 잘 풀었다.

회사 내 직원들이 일을 잘 하게 하려면 긍정적 정서를 심어줘야 한다.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IT기업들이 도입해 성공시킨 '편경영'도 긍정적 정서와 창의성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내재동기가 사라지면 성과도 떨어진다

두 번째는 내재동기이다. 내재동기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일이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리 할로의 붉은털 원숭이 실험이 유명하다. 원숭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퍼즐을 풀게 했다. A그룹은 원숭이가 좋아하는 주스를 줘서 보상 체계에 길들였고, B그룹은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런데 예상을 깨트리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B그룹 원숭이가 퍼즐을 더 빨리 풀었던 것이다.

나중에 이유가 밝혀졌는데, A그룹 원숭이들은 주스를 바라고 퍼즐을 풀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성과가 높았지만 점차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면서 갈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졌다. 재미를 느끼고 즐기지 못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여러 심리학자들이 인도에서 보상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했다.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A그룹은 평균 일당인 4루피를 주고, B그룹은 10배인 40루피, C그룹은 100배인 400루피를 지급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이 얼마를 받는지 모르게 하고 2주 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과연 어느 그룹이 가장 정확하게 일을 수행했을까? 사람들은 당연히 C그룹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A그룹의 성과가 가장 높았다. 오히려 C그룹은 일의 양이나 정확성 모두 성과가 가장 낮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이 보상의 역설이다. 높은 보상이 항상 퍼포먼스를 떨어트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외적 보상이 퍼포먼스를 떨어트린다. 이 경우에도 A그룹은 실제 일을 하면서 돈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4루피를 받다가 해고되면 비슷한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대신 그 일이 재미있는 일인지 먼저 확인했다. 그리고 경쟁이 없으니 동료들과 화합하고 서로의 노하우도 알려줬다. 반면 C그룹은 '도대체 무슨 일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거지? 조금만 잘못하면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라며 불안해했고 결국 업무 수행능력도 떨어졌다.

이러한 원리는 기업의 운명도 바뀌놓았다. 실제로 잘 나가던 소니는 1995년 과학적 경영컨설팅을 통해 보상체계를 도입하면서 망하기 시작했다. 도전정신이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각 부서별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일하면서 부서 간 이기주의가 팽배해졌다. 모두가 보상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일 자체에 재미와 내재동기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직의 CEO는 직원들이 일에 대한 즐거움과 보람을 찾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데 많은 CEO들이 착각하는 것이 직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돈을 줘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돈이라는 기본 개념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겠지만 비슷한 보수라면 그 다음부터는 일의 보람이다. 내 직장이고, 내 미래, 내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의 보람과 재미를 찾아줄 때 직원들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 자율성이 부여돼야 신나게 일한다

세 번째는 자발성이다. 자발성은 사람을 신나게 일하게 하는 법이다. 자발성의 원리도 내재동기와 비슷하게 작동한다. 교육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 왜 컴퓨터 게임을 재미있어 하는지 조사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게임의 자율성에 있었다. 아이들 스스로 무슨 게임을 할지 어떤 아이템을 구입하고 어떤 캐릭터를 선택할지 언제까지 게임을 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게임하는 동안은 철저하게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게임을 학교 필수과목으로 정해서 게임의 역사, 게임의 기초를 배우게 하고 시험을 치게 하면 지금처럼 게임을 좋아할까? 게임을 영어, 수학 공부하듯이 하라고 하면 즐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누가 시켜서 강제로 일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한다. 재미있게 보던 영화나 만화도 숙제로 시키면 갑자기 거부감이 생긴다. 따라서 일을 잘 하게 하려면 자율성을 부여해줘야 한다. 큰 목표만 주고 구체적인 목표설정은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목표설정을 하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재미있게 열심히 한다. 이것이 바로 자율성의 힘이다.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뇌를 만들어야 하고, 행복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처리 루트와 부정적인 정보처리 루트가 따로 있다. 똑같은 일과 상황에서 긍정적 정보처리 루트가 활성화되면 그 사람은 일도 잘 하고 소통능력, 회복탄력성이 더 높기 마련이다. **김미**

## 12월 7일 바탐방 교당에서 봉불식 가져 원불교 박청수 원로교무, 어머니 조의금으로 캄보디아에 ‘광타원김창원기념법당’ 신축

12월 7일 캄보디아 바탐방 교당에 대법당 ‘광타원김창원기념법당’ 신축 봉불식이 열렸다. 원불교 박청수 원로교무를 비롯한 재기출가 교도, 장반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이광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 등 관계자 80여 명은 12월 5일~9일까지 일정으로 이번 봉불식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광타원김창원기념법당’은 박청수 원로교무가 2008년 열반한 어머니의 조의금으로 대법당을 신축하고 어머니의 법호와 법명을 따 이름붙인 것이다. 박 교무는 “어머니 덕에 이 법당과 원광탁아소의 부지도 매입해 수도 프놈펜에 교당이 들어설 수 있는 준비가 됐고, 많은 분들과 봉불식을 올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현재 바탐방 교당, 프놈펜 탁아소, 인도 교당에 매월 800만 원을 후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니 협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장반기 회장도 축사를 통해 “캄보디아를 비롯해 세계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박청수 교무의 살신성인 정신이 원불교의 마음공부 수행의 힘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있다”며, “캄보디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원불교가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청수 원로교무는 1988년부터 캄보디아와 인연을 맺고 난민돕기를 비롯해 고아원 설립, 고아원식비후원, 지뢰제거후원, 샘물과주기 등 24년째 그들을 돕고 있다. 2007년 퇴임하기까지 전 세계 55개국에서 105억 원의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대법당 신

축 또한 현지 교회를 맡고 있는 교무들이 법회를 위한 법당 확장을 간곡히 요청해 이루어진 사업이다.

박 교무는 “앞으로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에서 침묵하며 일원상의 본래, 자성자리로 들어가 타력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것”이라며, “이제 인도로 관심을 돌려 인도정부로부터 2만여 평의 대지를 후원받아 법당을 세우고 그들에게 한글과 컴퓨터를 가르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2월 공사를 시작해 11월에 완공한 광타원김창원기념법당은 소속불교국가인 캄보디아에 원불교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효율적인 교회활동을 펼쳐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은 6일 프놈펜 외곽의 언동마을에 위치한 원광탁아소를 방문하는 등 원불교의 캄보디아 교회지역을 둘러본 뒤 9일 귀국길에 올랐다. **KHDI**



캄보디아 바탐방 교당에 대법당을 신축한 박청수 교무



탁아소를 방문한 장 회장과 박 교무 일행



24년째 캄보디아를 돕고 있는 박청수 교무



바탐방 교당에서 열린 대법당 봉불식

<단추를 채우면서>

천양희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추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실패  
누구에겐가 잘못하고  
절하는 밤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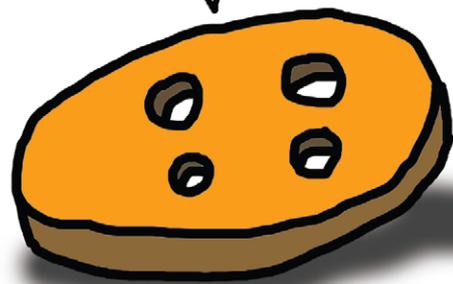
그래, 그래 산다는 건  
옷에 매달린 단추의 구멍찾기 같은 것이야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단추도 잘못 채워지기 쉽다는 걸  
옷 한 벌 입기도 힘들다는 걸

아내는 말한다.  
“단추를 위에서 아래로 채워야지  
당신은 왜 밑에서 위로 채워요?”

단추를 채우는데도 법칙이 있는걸까?

옷 하나 입는데도 방식이 다른  
우리 부부는 첫 단추를 잘 채운걸까?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리라!



# 말산업은 FTA시대 농어촌 살릴 신활력산업 경마, 건전 레저스포츠로 탈바꿈할 것



사진 오경근 원장

**취임하신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관 출신으로 산하 기관장에 취임하신 것이 다소 독특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먼저 취임에 관한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장관까지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정치보다는 농민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전파하고, 농업의 경영화에 기여하는 겁니다. 현재 마사회가 하는 일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마사회장으로서 농업리더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공기업의 기본은 '기업'이라는 신념으로 마사회에 기업가 정신을 통한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적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상이 궁금합니다.**

평소 경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사회를 공기업 경영의 모델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기업도 '기업'입니다. 공적활동 외에 기업형태의 경영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조직마인드, 조직의 틀을 변화시키고,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을 독립 사업체로 보고, 각 사업장마다 최고의 수익창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조직에 대한 평가와 보상 기준도 성과 위주로 판단할 겁니다.

세계적으로 경마의 사양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도 경마매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조 4천억 원에서 2010년 7조 5천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성장률이 2%에 불과해요. 2011년 매출액도 계획대비 0.6%(436억 원) 미달했습니다.

이 같은 매출감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 압박으로 마사회는 사면초가에 처해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이 정신으로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돌

“외국의 경마장은 온가족이 방문하는 놀이공원이자 사교의 장소입니다. 경마도 경주 자체를 즐기면 건전한 레저가 될 수 있어요. 경마가 도박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즐기는 레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마에 빠져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질문에 돌아온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의 답변이다. 장 회장은 경마가 국민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스포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마는 다른 사행업과 달리 말의 생산, 육성, 경주 활용 등 산업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 추진과 함께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잘 활용하면 국민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을 거란 얘기다.

2011년 11월 18일, 제33대 마사회장에 취임한 장 회장을 취임 한 달 만에 집무실로 찾아갔다. 농림수산물부 장관 출신답게 말산업 육성에 대한 그의 포부는 남달랐다. 말은 다른 가축과 달리 생육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큰 동물로, 말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FTA 이후 농가의 대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농어촌 활력산업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여기에 승마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레저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녹색국민레저산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마사회는 2012년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균형 잡힌 성장정책을 준비 중이다.

한편 경마의 사양화 추세와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심한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 회장은 취임 후 기업가 정신으로 조직에 경영마인드를 불어넣어 일류 공기업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의 기본은 ‘기업’이라는 전제 하에 공기업이 공적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임을 받아들여야 변화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지론이다.

2012년 말산업육성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장태평 회장을 만나 경마산업의 새로운 돌파구와 함께 신성장동력으로서 말산업이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파구를 찾아야겠죠.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 남이섬의 성공이 좋은 사례입니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보잘 것 없는 섬을 관광객으로 넘쳐나게 한 남이섬에 비하면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마공원과 목장은 훌륭한 자산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경마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마사회의 수익 극대화 정책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경마의 사행성에 관해서는 마사회가 스스로 건전화 노력을 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 경마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을 따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사행행위이지만, 경주 자체를 즐기면서 소액으로 하면 건전한 레저가 될 수 있어요.

작년 한 해 5만 원 이하 소액베팅이 전체 마권 구매 건수의 94.2%였습니다. 1만 원 이하의 비율은 71%였고요. 이

미 우리나라의 경마도 건전한 레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경마장은 온가족이 놀러오는 놀이공원이자 사람들을 만나는 사교의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족단위의 고객이 스스럼없이 경마장을 찾아와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족석을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수영하는 모습이나 박지성 선수가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끼고 흥분하고 즐거워합니다. 경마도 말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경마 선진국에는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는 스타 마필, 스타 기수가 많아요.

마사회는 경마가 국민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스포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한국경마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제화 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 전략의 일환으로 매년 국내 말을 미국에 보내서 해외 원정경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전자 분석을 통한 우수 2세마 3두를 엄선해 미국경마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또 작년에 최초로 장수군, 포항시 등 지자체를 마주로 영입했는데, 앞으로 연고지 프로야구단을 응원하듯이 지역민들이 지자체 소유의 경주마를 응원하는 등 자연스럽게 경마가 국민스포츠로 발전하리라 기대합니다.

**최근 경주마의 국산비율이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종마 및 경주마 육성 사업의 성과라고 보는데요. 한국의 경주마 자체 수급상황과 향후 계획을 들려주시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경주마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왔습니다. 그러나 말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적 있는 경마시행을 목표로 국산마 생산육성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국산마 자급률이 75%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죠. 올해 처음으로 국산마를 수출했는데, 비록 3두에 불과하지만 우수씨수말 도입, 육성체계 개선 등을 통해 경주마의 수준을 높여 연 50두까지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이 경마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용이 저렴한 해상으로 말을 운송할 수 있어 다른 나라보다 가격경쟁 면에서 유리하거든요.

아울러 올해 말산업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인 체형에 맞는 승용마를 개량하고, 이를 아시아권 국가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말의 수출은 단순히 가축 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마장 플랜트, 운영 IT시스템, 전문 관리인력 등의 연계 수출로 이어집니다. 이제 말이 수출 효자종목으로 떠오를 날도 멀지 않았습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정책이 경마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다.**

경마는 법으로 시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경마'라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의 이용을 규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경마는 다른 사행업과 달리 말의 생산, 육성, 경주 활용 등 산업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감위의 규제는 경마산업 뿐만 아니라 올해 태동된 말산업의 발전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말산업이 완전한 산업으로 기반을 다지기 전까지는 상당부분 경마수익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말산업이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경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은 필수입니다.

문제는 제도권 내에 있는 합법 사행업이 아니라 사설경마와 같은 불법도박입니다. 불법도박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김제 마늘밭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합법 사행산업의 규모가 17조 원인데 비해 불법 사행산업은 정부기관 등의 발표에 따르면 65조 원에서 최대 88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인 바다이야기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침에 따라 사감위가 태동했지만 정작 사감위는 불법도박은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 탈루, 도박피해자 양산, 수익금의 범죄유입 등과 같은



불법도박의 피해를 더 이상 방지하면 안 됩니다. 사감위가 불법도박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최근 진행 중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사감위는 합법 사행산업은 해당사업장을 관리하는 정부부처에 맡기고 불법도박 단속과 규제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불법 사설경마 문제는 국내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불법 사설경마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처벌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형량에 비해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죠. 한국마사회법에서 정하는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5천만 원의 벌금을 처하는 정도인데, 100억 원이 넘는 김제 마늘밭 불법도박 수익금은닉 액수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처벌기준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 사설경마를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베타잉금액에서 세금 등의 명목으로 27%를 원천 공제하는데 반해 불법 사설경마는 마사회처럼 운영업



장태평 회장과 장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에게 손실금액의 10~20%를 위로금 명목으로 되돌려 주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사회는 배팅금액을 1회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불법사설경마는 무제한으로 배팅할 수 있어 소위 큰 손들의 다수가 불법 사설경마를 찾는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설경마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단속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사회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경마 단속은 경마가 시행되는 휴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 수사관을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설경마 자체가 강력범죄가 아니므로 단속해봤자 실적이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사상 가점 등의 혜택도 미미하기 때문에 일선 수사관들이 마사회의 단속요청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사회는 이처럼 심각한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마에 대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설경마의 적극적인 단속을 위해서 단속 수사관의 포상 및 인사상 가점 부여 등 수사관의 단속 동유발을 위한 정책수립을 건의한 거죠. 아울러 자체적

으로 '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마팬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설경마 예방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된 만큼 2012년은 말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장 형성이 중요할 텐데요.

말 사육은 실제 소나 돼지 사육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커요. 이제는 말의 산업화를 위해 사료, 수의, 방제, 유통 등 관련시장이 활성화되고 연관 산업 또한 커져야 합니다. 현재 말산업 규모는 1,900여 농가에서 3만여 두의 말을 사육 중인데, 향후 4~5년 내 4,000~5,000농가를 통해 10만 두 사육을 목표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제역에 이어 FTA 체결로 소 사육농가의 소득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말로 축종을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경주용 말 생산을 승용마 생산으로 확대하고, 말의 식용과 말기름, 말똥 등의 부산물을 활용한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고기는 소, 돼지고기보다 건강에도 좋고, 말을 원료로 한 화장품과 의약품도 효능이 우수해 국민건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말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말산업 클러스터는 마사회가 직접 말 체험장과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수의, 장제분야 등 인근의 농어촌형 소규모 승마장을 지원육성하고, 주말에는 제한적 경마를 증계해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말산업 복합시설입니다.

말산업 클러스터는 말 문화의 원활한 보급과 다양한 소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의 문화거점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마사회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부 장관 출신으로서 경마산업을 총괄하는 마사회가 농축산업에 기여할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마사회가 그동안 경마산업을 총괄해왔지만, 이제는 말산업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경마시행을 통한 수익금의 사회환원도 분명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한국경제의 허부구조로서 말의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동안 경마 중심의 말산업은 수요시장의 제한과 생산, 육성분야의 경주마 편중으로 말미암아 규모면에서 산업화에는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산업에 대한 인식부터 말 중심으로 바꾸고, 경마뿐만 아니라 승마분야를 포함한 균형 잡힌 성장정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된 겁니다. 마사회는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이 되어

말산업육성법이 농축산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독일의 연구보고서(IPSOS, German Riding Association, 2005)에 따르면 말 3~4두가 1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또 2010년 서울대의 '말산업 육성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말 1두가 활용되는 25년 동안 총 5.63명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며, 약 4.8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말산업육성법을 바탕으로 말산업 육성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2014년 경에는 말산업 분야에 약 7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와 돼지 사육에 크게 의존해온 축산업은 축종편중현상 심화와 낮은 부가가치로 인한 사육농가 감소로 대안 마련이 절실했습니다. 여기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죠. 그러나 말은 일반적인 식용가축과는 달리 경마, 승마, 관광, 관상, 재활치료, 종부 등 생축 상태에서의 활용과 식용소비, 향장(香粧)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축종입니다. 또한 여타 가축에 비해 높은 거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축종으로 이러한 점을 반영해 최근 수년간 타 가축의 사육농가 감소세와는 대조적으로 말 사육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산업육성법에 근거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늘어나면서 최근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가추세에 맞춰 승마가 농촌관광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해 관광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경에는 말 두수가 현재 3만 두에서 10만 두로 크게 늘어나고, 말산업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도 2조 8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사회가 지역사회발전 기여와 사회공헌활동에도 많은 부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마사회는 경매매출 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회공헌의 폭을 확대

하고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매출액의 16%, 약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제세금을 납부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같은 해 법인세 1조 1,977억 원과 맞먹는 규모죠. 사회부문에서는 지역사회발전과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당기순이익의 70%에 달하는 2,294억 원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복지증진기금으로 출연하고, 기부금도 해마다 10억 원씩 증액해 2011년 기준 205억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500대 기업 평균 사회공헌지출액 120억 원 대비 약 2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농어촌에 대한 특화된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는데요. 마사회는 FTA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과 의료, 복지 증진에 출연기금과 기부금의 90% 이상을 할애하여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농어촌지역아동센터에 황금마차(11년 승합차량 110대) 지원, 취업준비 및 자활사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보급과 교육 등의 특화사업을 펼치고, 장애아동을 위해 'KRA 야간재활교육센터' 6개소를 개설하여 재할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자랑할 만한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와 봉사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마인드가 일치되어 노사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사회공헌 분야는 노사가 따로 없이 예산편성부터 기획, 활동을 함께한다는 거죠. 이는 여타의 기업이 갖지 못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KRA 무료급식소 '마음의 밥상'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마사회 임직원의 봉사시간은 연평균 33시간으로 국내 기업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아울러 마사회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압박과 게임중독으로 인한 청소년의 집중력 장애와 과잉행동 장애, 우울증, 분노 조절 곤란과 인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에 승마가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말을 활용한 정서장애 치료센터 2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사회 장외발매소 공간을 활용해 지적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교육장을 개설하는 한편 재활승마와 연계해 장애아동의 심신을 치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장님은 시조시집을 내시는 등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신데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마사회가 문화예술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식정보사회가 서서히 종언을 고하는 가운데, 이제는 꿈과 감성을 파는 드림소사이어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성공에도 인문학적인 소양이 뒷받침되었듯 인문학이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좌표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마사회는 문화예술 등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승마와 인문학을 결합한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해 각계 CEO들이 말을 통하여 경영과 감성을 접목시키고, 아울러 세계와의 경쟁에서 의연히 맞설 수 있는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올해 창립 37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조찬세미나를 개최하며 CEO의 학습문화 조성, 전국 지자체 및 기업, 공공기관 아카데미 교육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온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이 저마다 가진 잠재능력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엔 비해 사람들의 정신수준이 못 따라가는 문화지체현상을 심하게 겪어왔어요. 이의 처방으로 인간의 심성개발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논리에 밀려 늘 뒷전이었죠.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 37년간 묵묵히 먼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이 사회의 지표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시야를 농업분야로 확대하여 미래 농촌을 짊어질 농업경영인 양성 분야에서 마사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김재민**



**●장태평 회장**

1949년 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행정학 석사,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강남대 세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 행정고시 20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거쳐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돼 2010년 8월까지 2년간 일했다. 경제기획원 출신이지만 오랫동안 농업과 인연을 맺어왔으며, 최근까지도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한국벤처농업포럼 회장 등을 맡으며 농업 리더 육성에 힘써왔다.

# 성공하는 리더들의 MEDIA SPEECH CLUB

## 2011 송년모임 : Speech Contest

201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바쁘신 일정에도 1~7기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2011 CEO MS CLUB 송년모임&스피치 콘테스트'에 참가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매경미디어센터 12층 포시즌스에서 12월 15일(목) 저녁 6시30분 가진 모임은 시간상 모든 교육생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열렬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봄온아카데미 강창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송년모임 1부는 다재다능한 끼를 갖고 미래의 방송인을 꿈꾸는 봄온아카데미 학생들의 공연으로 시작했다. 오보에 연주자로 윤정인(봄온 107기), 성악 김현지(봄온 112기) 학생의 공연이 끝나고,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 봄온아카데미 성연미 대표, CEO MS 클럽 전순표 초대 회장이 개회사 및 축사를 전했다.

그리고 각 기수별 대표인 전순표 세스코 회장, 임종렬 갤럭시쇼 대표, 김영덕 유섬 회장 등의 유머러스하고 감동적인 건배스피치로 건배샷이 이어지며 한 해 동안의 수고와 함께 추억을 되돌아보고 더불어 경영대회를 준비하는 연습의 시간을 가졌다.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임종렬 대표가 직접 준비해 온 한라봉으로 함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그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송년모임의 하이라이트 '송년/신년 스피치 콘테스트'가 진행됐다. 2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내에 자유로운 주제로 펼쳐진 이번 콘테스트는 동료 평가표를 통한 합산으로 시상자를 선정하여 공정하게 치러졌다.

이번 제2회 스피치 콘테스트에 시상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다.

- 대상 CEO MS 7기 유만기 에듀코 총괄이사 **최우수상** CEO MS 1기 전순표 세스코 회장
- 우수상** CEO MS 7기 정란희 쏘이프린테크 대표이사 **장려상** CEO MS 1기 천석규 (주)천일식품 대표이사
- 인기상** CEO MS 6기 이부근 농협중앙회 상무

수상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2012년에는 제3회 스피치 콘테스트는 물론 CEO MS CLUB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화합을 위한 보다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기획, 진행할 예정이다. 2012년 이어질 8기 이후의 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연말연시 인사말, 3가지만 참고하라



연말연시에 가장 바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연말시상식을 앞둔 연예인? 다가올 선거 준비에 바쁜 정치인? 아마 그보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사치레를 해야 하는 우리 CEO들이 아닐까 한다.

날이면 날마다 해야 하는 인사말이지만 '연말연시에 좀 더 특별한 인사말은 없을까?' 오늘도 고민하는 CEO들. 회사를 대표하는 CEO의 인사말은 CEO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에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

기발하고 멋진 인사말은 오래오래 감동을 주고 회사와 CEO에 대해 다시 보게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여운을 남기기에 짧은 인사말이라 할지라도 뭔가 특별한 말이 없을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몇몇 행사에 초대되어 다양한 인사말들을 들을 수 있었다. "에... 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 우리 회사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난 성과를 기록해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기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인사말이라 그런지 감동보다는 의례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두에게 감동적인 인사를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감동적인 스피치로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대 졸업식 스피치,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등을 꼽는다.

그들의 말에는 어떤 힘이 있기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 물론 누구나 나름대로의 인사 방식이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별화된 인사말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말한 사람도 감동적이고 듣는 사람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본인만의 인사말을 위해 참고해 보기 바란다.

첫째,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기억에 남는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말은 감동을 주기에 부족하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은 본인의 경험과 철학에서 우러난 소신 있는 말일 수밖에 없다. '나는 어떤 말을 우리 직원들과 동료들에게 해주고 싶은가?' 나만의 생각과 철학을 정리해 보자.

예를 들면 "저는 인생을 살면서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의리, 나눔, 그리고 사랑입니다. 불타는 현장에서 사랑하는 동료를 구해줄 수 있는 의리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목숨 걸고 뛰어들 용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입니다, 저의 꿈과 행복, 그리고 어려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와 같은 것이다.

둘째,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이야기일수록 기억에 남는다. 인사말이라도 의견과 구호로만 그치는 말은 감동과 재미를 주기에 부족하다. 자신만의 경험담과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말해보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

모 기업의 회장이 회사 초창기 시절의 에피소드를 말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회사 초창기 쥐를 잡기 위해 집안 구석으로 들어갔는데, 한 가족의 쥐들이 모여 부둥켜안고 피신해 있는 모습을 보고 차마 잡지 못하고 돌아 나왔다는 말에 모두 그의 따스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셋째, 앞으로의 바람과 비전을 이야기해야 기억에 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영웅담이나 현재의 일화만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꼭 미래의 비전과 꿈에 대해 말해주기 바란다. 이는 필자가 아나운서 지망생들에게도 꼭 하는 말이다. 지금의 모습뿐 아니라 2012년에 변화할 모습을 비전과 꿈으로 말할 때 지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자신만의 철학,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 이 세 가지를 참고해서 연말연시 인사말을 준비한다면 짜임새 있는 인사말이 되지 않을까 한다. **김예**

강연기부 프로젝트 '위(We)대한 토크'

# 보통남자 신현성과 보통여자 조혜련의 첫 번째 위대한 토크

보통사람들의 꿈과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강연기부 프로젝트 '위대한 토크(we-talk)'가 출범했다. 명사가 강연 기부를 하면 보통사람들이 수강료 1만 원을 납부해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형식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복지와 교육, 건강 서비스를 지원해 공정한 삶의 출발을 돕고자 2005년 설립된 위스타트운동본부와 37년간 '인간개발'을 모토로 CEO 및 일반인들의 평생교육에 앞장서온 인간개발연구원이 강연과 기부를 콘셉트로 뭉친 것이다.

위대한 토크 그 첫 번째 강연이 지난 12월 6일(화) 200여 명의 '보통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보통남자 신현성과 보통여자 조혜련이 특별한 꿈과 도전, 그리고 그 꿈을 이룬 이야기가 펼쳐졌다. 티켓몬스터 신현성 대표는 좌충우돌 창업스토리를 통해 청년창업의 거침없는 도전과 성공을 이야기했다. 방송인 조혜련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는 자신의 인생과 내일의 모습 속에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담담하게 전했다.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토크를 지면으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 we-talk #1

### 보통남자 신현성의 열정의 창업 도전기



27살의 청년사업가 신현성. 펜실베니아 대 경영학과 재학시절부터 창업을 꿈꾸고 실천해왔던 그는 잠시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도 했지만 우연한 기회에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가지 마라. 미래를 개척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라'는 글귀를 보고 가슴속 창업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불태웠다. 그리고 그 무대는 한국이었다.

2010년 1월 15일. 신현성, 신성윤, 이지호, 김동현, 권기현 5명의 젊은 이들이 만나 창업한 것이 바로 '티켓몬스터'이다. 소셜 커머스 1위의 티켓몬스터는 현재 직원 900여 명의 회사로 성장했다. 경쟁업체인 데일리픽, 개발업체인 아스트릭스, 말레이시아 소셜커머스 업체 에브리데이닷컴, 세계 2위 소셜 커머스 업체 리빙소셜과의 잇따른 M&A로 국내 벤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티켓몬스터는 말레이시아 시장을 필두로 현재 아시아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청년들의 창업이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 구상했던 중소기업 대상의 인터넷 홍보 대행 비즈니스는 영업을 필수였다. 그러나 5명 누구에게도 영업에 대한 지식은 없었다.

"한국말로 서툴렀던 데다가 사업을 설명할 홈페이지나 제안서 한 장

도 없었다. 영업에 명함이 필수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티셔츠 차림에 야구모자를 뒤로 돌려쓰고 첫 영업에 나설 정도였다. 말투, 명함, 복장, 영업용 단어 구사 등 모든 면에서 누가 봐도 철딱서니 없는 친구들의 무모한 모험으로 비쳤을 것이다."

청년들이 무모한 도전 끝에 첫 번째로 론칭한 상품은 '횃집' 쿠폰이었다. 놀랍게도 1천 매 쿠폰은 순식간에 매진을 향해 달려 나갔고, 결국 그들은 홈페이지에 '폭발적인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걸어야 했다. 소셜 커머스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 신 대표는 막연히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 후로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그는 늘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과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성공에 운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청중에게 던졌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분명 운은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 뿐이다. 도전과 시도는 각자의 몫이고, 도전과 시도를 하기 때문에 운이 따르는 것이지 운을 보고 도전해서는 안 된다."

그 자신 역시 대학 시절부터 창업을 꿈꿨고, 도전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티켓몬스터를 창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일하지만 지금 당장의 '나'를 위한 도전과 선택도 필요하다는 게 신 대표의 주장이다. 그에게 선택은 창업이었고, 회사를 위해 도전하는 과정은 즐거움 그 자체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회사



일이든 취미생활이든 지금의 나를 위한 도전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도전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다. 도전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극복하는 것 또한 과제이다.”

최근 티켓몬스터가 세계 2위의 소셜 커머스 업체인 리빙소셜에 매각됐다는 기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욕을 먹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신 대표는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고, 회사를 위한 좋은 의사결정이었다면서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신 대표는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전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이다. 열정을 가진 직원들이 바로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창업과 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감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열정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하며, 이것이 팀을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we-talk #2**

**보통여자 조혜련의 진짜 성공을 위한 도전하는 삶**



42살, 두 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19년간의 방송생활. 때로는 짧은 팔다리를 웃음소재로 삼고, 때로는 골룸으로 분해 큰 웃음을 주고, 때로는 '아나까나라는 노랫말로 한글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던 '한국 토종 여자 조혜련'. 오랜 방송생활과 최근 일본 방송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어왔기에 그는 어

떤 강사보다 당당하게 청중 앞에 나섰다. “일본 진출 과정에서 정말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 3년 전에는 ‘인생 바닥’도 쳐봤다. 지치고 힘들 때면 술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럴수록 우울증은 심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돼, 이리와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평범한 방송인에서 도전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방송인 조혜련’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강연 곳곳에 묻어났다. “조혜련은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칠까? 나는 8남매의 5번째 딸로 태

어났다. 물론 막내가 남자다. 우리는 막내를 낳기 위한 중간 수단에 불과한 존재였다. 그러나 딸로 태어난 인간으로서, 삶은 자존심의 문제였다. 일본 진출이라는 도전은 그래서 죽어도 못 그만둘 일이기도 하다.”

일본에 진출하기 전 조혜련은 평범한 방송인이었다. 그런데 일본 진출을 꾀하면서 ‘인생을 정리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고, 그때 그를 붙잡아 준 것이 ‘책’이었다. 자기계발서를 위주로 두 달 동안 80여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행복해야 하고, 존재가치를 느껴야 한다. 부와 경제적 능력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식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의식수준이 올라가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질 수 있고, 품격이 올라간다. 먹고 사는 문제는 진정한 행복과는 무관하며,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삶에 품격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믿음이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그의 저서 <의식혁명>에서 인간의 잠재의식을 1~1000까지로 수치화했다. 예수, 부처, 간디 등의 선각자, 성인군자들은 700 이상의 잠재의식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잠재의식 수치 2를 올리기 어렵다. 그러나 의식의 수준을 올리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첫째, 걷는 것이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사색하면서 걷는 것이 좋다. 둘째, 독서다. 자기계발서보다 철학 서적이 좋다. 역사적인 철학자들의 사상을 책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랑이다.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선각자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그 에너지가 실로 엄청나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위해 1분에 쉬지 않고 70여 회나 뛰어주는 심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당부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그래야 에너지가 나오고, 주변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과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강연을 마쳤다.

“인생에 성공과 실패만 존재할까? 아니다. 인생에는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다. 진짜 성공은 잘 죽는 것이다. 죽는 그 순간까지는 모든 것이 과정이다. 중간에 힘든 일이 있어도 ‘과정이야’라는 대답함을 가지길 바란다.” **김재민**



**\*CLA 3기: 2012년 1~2월 프로그램**

-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 목사 / "섬김의 리더십! 발심"
- 이재포 CBS 대표 / "손안의 작은 세계, 스마트 세상을 잡아라"
- 곽영훈 사람과 환경그룹 회장 / "나의 섬김 Visioning"
- 신갈렐 열방네트워크 대표 / "가치 있는 문화와 리더의 역할"
- 다일천사병원 봉사
- 윤은기 중앙공무원연수원 원장 / "더 큰 대한민국 생각의 틀을 바꾸자"
- 송길원 하이패밀리대표, 목사 / "소통의 법칙"
- 김태연 GPI전문선교원 원장 / "꿈과 비전 그리고 미션의 실행 전략"
- 김영길 한동대 총장 / "글로벌 역량과 창의적 인성"
- 고양시 천사의 집 봉사
- 박종원 코리안리재보험 사장 / "글로벌시대 변화와 혁신"
- 강우현 남이섬 대표 / "상상을 통한 미래의 날개 달기"
- 이재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종강예배 및 종강식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나눔과 섬김' 시리즈1

# 'Give, and Take (먼저 주라, 그러면 더 많이 받을 것이다)'

한국기독교의 살아있는 56년 역사의 CBS와 경영자교육의 메카 인간개발연구원이 함께 만든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CLA)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우고 나누어갈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최고위과정이다. 2010년 10월 1기를 개설해 현재 3기를 진행하고 있는 CLA는 원우들이 이런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사회적으로 숭수범하는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CLA 1기 원우회장 인 조용근 이사장의 섬김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본다.

편집자 주

올해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나눔 행사가 펼쳐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 1월 말까지의 모금 목표액이 2,180억 원인데, 지난해 12월 25일까지 1,274억 원을 모금하여 목표액의 절반 이상인 58.4%를 달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개인 기부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을 보면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하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안타깝다.

### 쉽표 하나로 달라지는 나눔의 의미

나는 이런 최근의 추세를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give and take(주고받기)' 법칙이 철저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give와 and 사이에 쉽표(.) 하나만 쳐보자. 'give, and take'가 되는데, '먼저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은 단순히 주고받음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사람들은 먼저 주는데 인색하다. 대부분 대가를 바란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기보다 먼저 줘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더 많이 돌아온다. 우리는 쉽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나에게는 35년째 사용하고 있는 조그마한 철제저금통이 있다. 작은 나눔을 위해 이 저금통에 매달 10만 원씩 모아 30년 동안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했다. 지금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1만 원씩을 넣는다. 저금통이 다 차면 어려운 이웃에게로 보낸다. 아울러 상담자 방문하는 내방객으로부터 받는 상담료와 각종 강의로 및 출연료 모두를 중증장애우들에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친분이 오래됐건 아니건 나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자일 거라고 예단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이 부자라고' 대답한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과 질문을 하는지 짐작은 한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청에 근무할 때부터 '석성장학회'를 만들어 1년에 몇 차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고, 지난해에는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해 (사)석성일만사랑회를 설립·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1984년에 무학자(無學者)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 유지를 받들어 물려주신 조그만 집을 처분해 장학회를 만든 작은 나눔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어려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이 있다. 아버지가 밀항선을 타고 일본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외가에서 두부 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없는 살림이라 굶는 일도 많았다. 다섯 살 때 당시 두 살이던 동생은 영양실조에 걸렸다. 어느 날 어머니가 고기를 구해와 나와 동생에게 먹이셨다. 나는 다행히 소화를 시켜서 살아났고 동생은 소화를 시키지 못해 결국 죽고 말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고기는 '들쥐'였다. 당시 50마리 정도는 먹은 것 같다.

### 먼저 손 내미는 선한 영향력 바이러스

이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눔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아는 것이다. 또한 밑바닥부터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나눔을 같이 하려는 것이다. 특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나눔을 하는데 있어 솔선수범하길 원한다. 언제나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고 봉사를 통해 감동을 주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비록 부자가 아니어서 거금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2005년 공직 은퇴 후 설립한 세무법인 석성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를 매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이런 기부는 무엇보다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남에게 주어버리라는 일종의 신념이 뿌리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듯 '먼저 준다'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나눔을 실천하자 오히려 회사 수입과 장학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96년부터 16년째 청량리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 다일공동체 '밥퍼' 봉사활동 역시 내 주변의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동참에 나섰고 밥을 퍼주는 것은 물론 직접 식사비용까지 찬조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나는 이를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이 먼저 준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전파할 때 나눔운동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사회는 이해와 손익을 철저히 따지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가 따라오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우선 형편이 나은 사회 지도층부터 'give, and take'의 정신에 충실하고 이러한 바이러스를 사회 전체로 퍼뜨려 나가는 운동을 지금부터 펼쳐나갈 것을 제안한다.

최근 '행복지수와 나눔의 효과'에 대한 한 조사에서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0% 정도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 'give, and take'의 원칙을 정하고 생활하면서부터 앤돌핀이 치솟는 것을 느끼고 매일 매일 행복감에 젖어 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나눔은 자신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김세민**



● 조용근 이사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으로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세무법인 석성 회장으로 석성장학회, 석성일만사랑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한편 살림동산학원 이사장, 청량리 다일공동체 밥퍼 명예본부장 등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 홍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나눔봉사 부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한국기독교선교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 회원 소식 ]

### ■ 이심 (사)대한노인회 회장

은 지난 11월 3일 사회복지계에서 최고 권위와 영예를 인정받는 제11회 백강상 시상식에서 '사회복지공헌상'을 수상했다.



### ■ "Leading Total Solutions in Life Sciences"를 추구하는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회장 황을문)가

지난 11월 4일 판교 테크노밸리 단지 내 코리아바 이오파크로 사옥을 옮겼다. 황 회장은 국내 수십여 개의 바이오기업 및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전략적 옹호자로 각광 받고 있는 이곳에서 '판교신화'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전적 에세이집 <지난날의 꿈이 나를 밀어간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책에서 대학 입학 후 제적당하면서 단순조립공, 전기기술자 등 노동자의 삶을 걸어왔던 길과 치과의사를 거쳐 장관, 국회 의원 등으로 살아온 삶을 소개하면서 "시대의 격변을 운명으로 겪어내면서 살아온 50대가,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2040세대에게 던지는 위로이자 사과, 화해를 위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모두 인터넷 사이트(<http://cosmotell.cafe24.com/kim/kyh.htm>)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최초로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출판기념회를 생중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 ■ 김상래 (주)성도GL 사장은

지난 11월 16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메세나대상 시상식'에서 '아트 앤 비즈니스상'을 수상했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메세나대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성도GL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제공하며 돈보이는 파트너십을 발휘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사단법인 헤이리'와 공동수상하게 되었다.



■ **홍석우 KOTRA** 사장은 지난 11월 17일 오전 정부 과천시사에서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1조 달러 행정, 2조 달러 정책"을 지식경제부 슬로건으로 내거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 **김창승 최재형장학회 회장**은 기독교 실업인회(CBMC) 아시아 명예이사장 자격으로 지난 11월 17일 대만CBMC 창립 50주년에 초청되어 격려사를 했다. 14개국 380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최재형장학회를 통해 러시아의 고려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으며, 이를 들은 필리핀 기업인 VICTOR CHIONG, ALBERT PARERS 회장과 일본 기업인 KOJI SOMA 회장 등이 각각 4천 달러씩 1만 2천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받는 성과를 올렸다.



■ **(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이사장 임정희)**는 지난 11월 23일, KBS 라디오 공개홀에서 KBS와 '사랑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청소년 행복 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



■ **조인스HR(대표이사 이재산 · 양병만)**은 지난 11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스마트 시대의 HR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1 송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은 지난 12월 2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기념영화한독 경제교류의 현장을 가다 상영과 '독일의 날'을 선포하는 한독경제협력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ABCD 성공법-꿈을 꾸며 노력하면 이루어진다>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번 책은 지난 6년간 총 500회에 달하는 강의내용을 업그레이드해가며 정리한 내용이다. 저자는 강연을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 공부법과 사시,



행시, 외시 합격 후기,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체험담을 곁들여 담당하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대학 재학시절 3대고시를 최연소, 수석, 차석으로 합격했으며, 판사를 거쳐 미국 3대 로스쿨인 예일, 하버드, 콜롬비아대에서 석박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원조 공신'으로 이 책에는 다양한 계층이 적용할 수 있는 성공철학이 담겨있다.

■ **한국아쿠르트대표이사 양기락**은

지난 12월 8일 서울광장에서 올해로 11주년을 맞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연배 사랑의열매 회장을 비롯해 아쿠르트아줌마 외 자원봉사단 2,000여 명이 참석해 5만 8천 포기의 김장을 담갔으며, 김치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약 2만 5천여 가구에 전달됐다.



■ **롯데호텔(대표이사 좌상봉)**은 지난 12월 8일, (사)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스마트앱어워드'에서 교통·여행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스마트 앱어워드는 올 한 해 동안 발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애플리케이션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롯데호텔은 최고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 **대한삼보연맹(회장 문중금)**은 지난 12월 10일, 서울 은평구민체육센터에서 제4회 회장기 전국삼보선수권대회 겸 2012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했다.



■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12월 15일, 제

17대 연세대 총장에 선임됐다. 정 총장은 취임사에서 "선진 명문형 레지덴셜 컬리지[Residential college, RC]를 통해 한국 대학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3의 창학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존 대학은 학교와 집을 오가며 수업을 듣는 반면 RC는 대학 기숙사에서 교수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일종의 24시간 학습 공동체이다. 정 총장은 "지금은 학생들이 보통 일주일에 18학점을 듣는데



RC가 도입되면 두 배 정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며, "더 많은 수업을 교수와 함께 할 수 있고, 오후에는 다양한 문화적 체험도 하는 생활밀착형 전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는 지난 12월

1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18층에서 '100인 초청 비전발표식'을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발표식에서는 한면희 창조한국당 대표의 "호양부쟁과 중용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엄재한 일본 산교타임즈 서울지국장의 "언론이 전하는 문국현 담론", 문국현 대표의 "제3세력의 시대적 사명"이란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발표 후 질의 및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2월

17일, **한국마사회 회장**에 취임했다. 농축산분야를 총괄하던 장태평 전 장관이 취임함으로써 국내 말 산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재능교육대표 양병우**는 12월 17일, 세종문화회관

채임버홀에서 제21회 전국시낭송경연 성인부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16개 지역에선 최우수상 수상자들의 열띤 시낭송 경연이 펼쳐졌다.



■ **이재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최근 열린 유엔

자문기구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총회에서 ACI 세계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



■ **롯데백화점(대표이사 이철우)**는 창립 32주

년을 맞아 새로운 CI를 선보였다. 새 CI는 'LOTTE'라는 글씨체 밑에 'DEPARTMENT STORE'를 넣었고, 현대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색상을 '엘로우 골드'에서 '삼페인 골드'로 바꾸었다.



■ 박청수 (새청수나눔실천회

이사장은 50여 년 동안 세계 53개국을 다니고, 55개국을 도우며 한평생 나눔을 실천한 자신의 삶과 든든한 후원자였던 어머니(김창원, 2008년 작고)의 삶을 그린 에세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길>(한길사)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원불교 정녀가 되기 위해 결심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먼 곳으로 떠나보내기까지의 이야기와 함께 강남교당을 세운 개척교회 시절부터 2개의 대안학교와 탈북청소년을 위한 중



고등학교를 세운 이야기 등 국내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 전화 : 02-2270-3155
- 팩스 : 02-2270-3377
- 주소 :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6-54
- 홈페이지 : <http://www.ambatel.com>

■ 심영찬 에스피스퀘어스 대표이사 (온라인평생회원)

에스피스퀘어스(SP Squares)는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 공정관리 솔루션 구축 및 키오스크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훌륭한 기업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 전화 : 031-8007-7007
- 팩스 : 031-8007-7070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8 수원첨단벤처밸리 811호
- 홈페이지 : <http://www.sp119.com>

[ 신규회원 ]

■ 이정훈 HUMUS 대표이사 (개인회원)

HUMUS(휴무스)는 기업 금융 Risk Management(RM) 전문기업으로 비 금융권 기업의 상황에 맞는 R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UMUS RM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리스크 분석, 솔루션 설계, 실행, 모니터링 등이며, 이를 통해 금융 리스크로 인한 도산 방지, 현금 흐름 이익 최적화, 안정화,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전화 : 02-536-4868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37 W타워 12층
- 홈페이지 : <http://www.humus.co.kr>
- 추천인 : 한종덕 국제로타리3650지구 행정사무 부총장

[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 박이락 (주)성한트랜스텍 대표이사의 장녀 송희양의 결혼식이 지난 11월 5일(토) 오후 5시, 63빌딩 2층 그랜드볼룸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이덕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의 장남 지훈군의 결혼식이 지난 12월 16일(금) 오후 6시, 웨딩의전당 2층 토파즈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서정호 앰배서더호텔그룹 회장 (개인회원)

앰배서더호텔그룹은 대한민국 호텔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시절부터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기 위한 서비스정신을 바탕으로 현재 19층 450실의 특급 호텔 '소피텔 앰배서더'로 성장했다. 서정호 회장은 지난 2010년 네바다주립대 '올해의 동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경희대 호텔관광대학에 '경희-앰배서더 글로벌 리더반'으로 명명된 도서관을 기증하기도 했다.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

회사명	이름/직함	창립기념일
비디피로지스틱스코리아(유)	고재두 대표이사	1월 2일
점보실업	오성호 회장	1월 3일
(주)E&C정보기술	방기봉 회장	1월 8일
(주)실버텍스	정만우 대표	1월 21일
나경상사(주)	이승우 회장	1월 23일
청미원(주)	윤동노 대표이사	1월 25일
신구종합건설(주)	김성귀 회장	1월 29일
(주)광인기업	김용희 회장	1월 30일
태극건설(주)	김정국 사장	2월 28일

## [소모임 소식]

###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홍승국)

11월 모임은 17일, 삼성동 소금창고에서 인간개발연구원 직원을 초대하여 회원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이 자리



에서 황석희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늘 수고하는 인간개발연구원 임직원들과 정례적인 자리를 가짐으로써 회원과 연구원의 유기적인 발전을 기대한다"며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 인목회(회장 차진영/총무 박이락) 11월 정기모임은 24일, 대장금에서 휴무스의 이정훈 사장을 초청하여 어려운 금융위기 시대에 기업금융리스크 관리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 YCF(회장 황광석 / 총무 안정욱)

11월 모임은 14일, (주)성도GL(사장 김상래)을 방문하여 YCF 초대 회장인 김상래 사장의 '기업과 경영, 그리고 YCF 창립 스토리'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모임은 손욱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세종리더십으로 배우는 기업가 정신과 CEO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는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새

임원진 선출 에세이클럽은 12월 12일, 강남진진바라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한 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는 에



세이클럽 창립 때부터 회장 및 총무로 애써 오신 김창송 성원교역 회장과 이계욱 다윈 대표의 회장단을 대신할 신임 회장단 선출이 있었다. 신임 회장단은 아래와 같으며, 2012년 첫 정기모임은 1월 9일 문학의집 서울에서 수필쓰기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2년에도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정용달 팀장 010-4221-0517)

- 회장 - 박춘봉 부원광학 회장 / ● 부회장 - 정문호 동국산업 부회장
- 명예회장 - 김창송 성원교역 회장
- 총무 - 정지환 감사나눔신문 편집국장
- 고문 - 양병무 재능교육 대표, 이계욱 다윈 대표

## [연구원 소식]

### ■ 장만기 회장 중국공무원 연수단 강연

장만기 본원 회장은 한중 교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한중문화협회 주최로 11월 15-16일 양일간 '간부 리더십과 자아발전'이라는 주제로 상해 새마을 연수단, 고려대 연수단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 ■ 장만기 회장, 한국을 빛내는 CEO

#### III 수록, 출판기념회 가져

(사)한국전문경영인(CEO)학회(회장 표정호, 이사장 강석진)가 간행하고 있는 <한국을 빛내는 CEO> 제3집에 장만기 본원 회장이 10명의 수록자 중 한 명으로 등재되어 지난 12월 9일 프레지



던트호텔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에는 지난 37년간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CEO포럼, 지방자치아카데미, 시민사회 평생학습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전개해온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의 인생스토리가 담겨있다.

<한국을 빛내는 CEO>는 한국전문경영인학회의 교수진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탁월한 리더십으로 회사발전은 물론 한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한국을 빛내는 존경받는 CEO를 선정해 그들의 업적을 다룬 출판물로, 장만기 회장을 비롯해 강덕수 STX그룹 회장,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박영주 이진그룹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 이수영 OCI 회장, 이상한 홈플러스 회장,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 한근태 삼영기계 회장,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등 10명의 세계적인 CEO들이 선정되었다.

###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회원

#### 사제품 협찬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참석자를 위하여 김석문 신일



팜글라스 대표이사는 '도르만스 커피'를, 홍승국 에버그린MST 대표이사는 '손목시계'를 매주 선물로 협찬해주고 있어 회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고 있다. 협찬해주시는 김석문 대표, 홍승국 대표께 감사드리며, 본원에서는 협찬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하고 있다. 자사 제품 소개에 관심 있으신 회원은 본원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 문의처: 경영자교육팀 민선아 차장(Tel. 02-445-1948)



# “나는 CEO다”

## CEO의, CEO에 의한, CEO를 위한 송년파티

CEO들의 특별한 쇼, CEO 삼행시 짓기 등 다양한 이벤트 열려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여전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찬 새해의 덕담을 나누는 2011 송년의 밤 ‘나는 CEO다’가 12월 22일(목) 컨벤션 디아팡에서 300여 명의 회원 및 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송년모임은 CEO의, CEO에 의한, CEO를 위한 송년파티로 기획해 ‘나는 CEO다’를 테마로 정했다. 이를 위해 CEO들의 숨겨진 재능을 선보이는 ‘CEO들의 특별한 쇼’가 펼쳐졌다. 박이락 성한트랜스텍 사장의 색소폰 앙상블 연주, 성연미 봄온커뮤니케이션 대표의 미술쇼, 김창송 성원교역 회장의 하모니카 연주,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의 랩

송 등이 무대에 올라 CEO들이 평소 다양한 취미생활로 자신을 갖고 닦는 모습을 보여줬다. CEO 쇼의 인기상은 김창송 회장이 차지해 원 품물산(회장 이원기)이 기증한 남성정장 한 벌을 선물로 받았다.

한편 ‘CEO(씨이오)’를 주제로 한 삼행시 짓기 이벤트를 행사 전부터 기획하고 사전참가 및 현장참여를 통해 73명의 응모를 받아, 이 가운데 전순표 세스코 회장을 장원으로 선정하고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기증한 휘호를 선물로 증정했다.

이 날 송년모임에는 김진현 대한민국의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 유상욱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이덕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 광영



**\* 송년의 밤 협찬과 후원을 감사드립니다.**

성명	소속	내용
경북 경주시		경주특산 황남빵 10세트
권기식	한국NGO신문 회장	'이제, 정치도 경영이다' 저서 50권
김상기	육군본부 참모총장	크릴스탈 부부잔 1세트
김유혁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휘호 1점
김인호	셀리코리아컴퍼니 사장	실리리텍스 메트릭스 슈퍼싱글사이즈 1개
김학수	동서식품(주) 부사장	'카누' 커피선물 10세트
두상달	가정문화원 이사장	'아침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저서 20권
박용팔	진능IT(주) 회장	복분자 와인 10병
박중현	공군본부 참모총장	T-50고등훈련기 모형세트
백정선	TNV어드바이저 대표	'부채는 줄이고 행복자산은 늘려라' 저서 40권
성연미	봄은커뮤니케이션 대표	미디어스피치 수강권 1매
손경식	한국서화원로연합회 회장	휘호 1점
양병무	(주)재능교육 사장	2012년 메모수첩 250개
유상옥	(주)코리아나 화장품 회장	2012년 달력 150부
윤동한	한국콜마(주) 회장	도화랑 여성용 화장품 5세트
이기영	호서대 식품생물공학과 교수	'음식이 몸이다' 저서 100권
이원기	원풍물산(주) 회장	킨록앤더스 신사복 슈트 1착
이재옥	중앙에프앤에스(주) 사장	구두티켓 1매
이중원	(주)리사이트 대표	그림 1점
이충희	(주)듀오 사장	에트로 솔 2점, 화장품 브랜드 '쓰리랩(3LAB)', '오를랑(ORLANE)' 각 3점
장찬기	(복)해동재단 회장	2012년 달력 250부
전순표	(주)세스코 회장	후라이팬 5개, 2012년 세스코 수첩 200개
정이안	정이안한의원 원장	산삼약침 10회 시술권 2매
조남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더미러클' 도서 300권
조순	전 경제부총리/본원 명예회장	휘호 1점
조태권	광주요 회장	주류 '회요' 3종 2세트, 연아콜렉션 제품
좌상봉	롯데호텔 사장	롯데호텔서울 숙박권
최일묵	무크투어(주) 대표이사	제주왕복항공권 2매
허봉수	EBM통합의학센터 원장	EBM 유전체 타임 종합검진권 2매
홍승국	에버그린(MST) 사장	탁상시계 30개
이상춘	(주)에스씨엘 대표이사	테이블 협찬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테이블 협찬
조서환	(주)세라젬헬스앤뷰티 대표	테이블 협찬
지승룡	민들레영도 사장	테이블 협찬
다락회	정태익 회장(연구원 소모임)	후원금 30만 원
박성훈	(주)모간 회장	후원금 100만 원
박춘봉	부원광학(주) 회장	후원금 30만 원
이용국	신원헬트(주) 회장	후원금 200만 원
화목회	황석희 회장(연구원 소모임)	후원금 100만 원

\*가나다 순입니다

훈 사람과환경그룹 회장,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박정수 청수나눔실천회 이사장,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이시형 세로토닌문화원 원장, 조서환 세라젬H&B 대표, 유순신 유엔파트너즈 대표, 김후란 문학의 집·서울 이사장, 신달자 작가 등 본원 회원 및 강사진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계의 리더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방송과 기업에서 스타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찬 개그맨의 진행으로 푸짐한 경품이 참가자들에게 선물로 돌아갔으며, 환상의 하모니를 들려준 남성5인조 팝페라그룹 '엘루체'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져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송년모임을 통해 연구원은 아프리카 말라위를 돕기 위한 '시계&안경 기부' 프로젝트를 펼쳤으며, 참석자들로부터 기부 받은 시계와 안경을 말라위로 보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밝은 세상을 선물할 예정이다.

**바쁜 연말 일정 가운데 송년의 밤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시신 회원 및 강사 여러분, 그리고 후원 및 협찬을 통해 풍성한 송년파티를 만들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송년의 밤 ‘CEO 삼행시 짓기’

# C·E·O 세 글자에 숨겨진 비밀



‘나는 CEO다’ 송년파티를 맞아 진행된 ‘CEO(씨이오, 시이오) 삼행시 짓기’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열한 경영환경에서 CEO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과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CEO의 의미를 삼행시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영원한 CEO입니다.

1위

**전순표 세스코 회장**

- C 시대를 앞서가며
- E 아수도 헤쳐내고
- O 오직 한 방향으로 정진하는, 그대는 멋진 CEO

- C 시대가 그대를 속일지라도
- E 이 한 몸 곳곳이
- O 오직 목표를 위해 달린다면, 겁낼 것이 없으리

- C 시커먼 해충들이
- E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 O 오! 세스코를 불러주세요.

2위

**고지석 세무법인 내일 대표**

- C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 E 이 자리에 같이 계신 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고,
- O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3위

**김혜중 프래머치코리아 대표**

- C CEO의 고뇌를
- E 이해할 사람은
- O 오직 CEO 그대 뿐!

**정태익 법무법인 율촌 고문**

- C 시선은 멀리 두고
- E 이상을 높게 가지는
- O 오늘의 CEO를 칭찬하라!

**장찬기 (복)해동재단 회장**

- C 시원한 모습으로
- E 이제껏 열정으로 살아온
- O 오! 그대는 CEO

**이성미 한국웃음치료전문가협회 부회장**

- C 씨~익 한번 웃어보세요.
- E 이 세상이 당신의 웃음으로 환해집니다.
- O 오늘 이 밤이 더욱 아름다운 건 바로 CEO, 당신의 웃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CEO 당신의 웃음이 대한민국 희망의 등불이며 경쟁력입니다.

**서형숙 엄마학교 대표**

- C 씨줄 날줄 엮듯
- E 이 자리에 모인 우리 CEO들 힘 합치면
- O 오메~ 이 땅이 천국되겠다!

**이희수 한양대 교수**

- C Call
- E Educate
- O Organize Human resources for the future korea

**석동연 경기도 국제관계 자문대사**

- C 시대의 정신을 찾아
- E 이제 우리 모두 고민하여
- O 오직 국민만을 섬기는 지도자를 뽑읍시다.

**송진태 세계선교총연합 총재**

- C 시대에 필요한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 E 이상의 날개를 펴서 훨훨 날아가는 모습으로
- O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가 됩시다.

**이건희 기업은행 반월시화센터 소장**

- C 시대를 초월하여
- E 이웃에 베푸는 CEO가
- O 오랜 기간 성공하더라.

**최귀재 (주)다산 이사**

- C 시냇가 나무들이 열매 맺는 것처럼
- E 이룰 일들 많고 많은
- O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진정한 CEO!

**방기봉 E&C정보기술 회장**

- C 시끌벅적 이 세상
- E 이제는
- O 오직 CEO 당신만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성홍 (주)교농 아그리메드 대표**

- C 씨줄 날줄 울음이 엮여
- E 이 밤 지새도록 가족을 위하여 배운 찌는 어머니의 종교처럼
- O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애쓰는 고독하지만 행복한 1인 혁명가이다.

**유만기 에듀코 이사**

- C 시시각각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 E 이제나 저제나 회사와 직원 걱정에 잠 못 이루는
- O 오직 한 사람 당신! CEO입니다.

**한종덕 한국갤럽 자문위원**

- C 씨이오! 고달프다.
- E 이 자리에서는 모두 다 내려놓고
- O 오직 이웃과 함께 술잔을!

**박난규 한국걸스카우트연맹**

- C 시름하지 않고 항상 유쾌 상쾌 상큼한
- E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CEO 여러분!
- O 오래도록 함께 건강하게 9988234! 으라차차!!

**정이안 정이안한의원 원장**

- C 시절이 좋은 때나 시절이 나쁠 때나
- E 이 사업 좋을 때나 이 사업 힘들 때나
- O 오롯이 버텨내는 나는야 CEO

**고환상 미래신용정보 부사장**

- C Challenge와
- E Energy로
- O 오직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CEO가 되겠습니다.

**성연미 봄은커뮤니케이션 대표**

- C 씨앗을 가꾸는 마음으로
- E 이 마음 다 바쳐서
- O 오로지 회사를 위해 일하는 나는 CEO다.

**곽노석 미래에스지 대표**

- C 씨이오(CEO)의 삶은
- E 이 한 몸을 버리고
- O 오직 회사만을 생각해야 하는 고단한 삶

**김영란 무크투어 이사**

- C 시원하고 쿨한
- E 이 시대 최고 멋진 CEO 여러분!
- O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원하던 내일입니다. 현재를 즐기시다. 맛싸~ 파티팅!

**윤희정 (주)다산**

- C 씨실과 날실이 엮이듯이 일과 사랑 엮어 가시는
- E 이직적이고 완벽한 커리어마 넘치는
- O 오야봉, 당신! CEO!

**오명환 경원대 교수**

- C 씨를 많이 뿌리면 열매가 많이 열려 수확을 많이 하여
- E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젊은이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지원하며
- O 오를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김상현 (주)K&P 대표**

- 時 : 때를 알고
- 理 : 사리에 밝은
- 품 : 나 자신

**고재두 BDP코리아 대표**

- C Century of 21
- E Education of CEO
- O Only one, KHDI

**공한수 빅드림앤섹세스 대표**

- C 시원하게 황무지에 길을 내어
- E 이 세상에 꿈을 실현하는
- O 오- 마이 갓(God) 같은 존재

**정지환 감사나눔신문 편집국장**

- C 시대를 앞서가는
- E 아들은 누구인가?
- O 오! 인간개발연구원 회원들이여

**김승래 창조경영아카데미 소장**

- C Creativity
- E Empathy
- O Orchestration 창조적 리더십, 공감의 리더십, 조화의 리더십이다.

**임구남 바이오줄기세포연구소**

- C 시대의 흐름에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은
- E 이 자리에 모인
- O 오직, 인간개발연구원 CEO 여러분입니다.

**함선필 한남대 교수**

- C 시대가 당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한탄 말고
- E 이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도록
- O 오직 한 마음으로 우물을 팍시다.

**함정희 함씨네토종공식품 대표**

- C 시대의 사명감을
- E 이루기 위해
- O 오늘 훌륭하신 분들의 모임, 인간개발연구원에 전북 전주에서 아들 2명과 왔습니다.

**박인옥 유머플러스센터 소장**

- C 시간을 쪼개고 쪼개
- E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 O 오늘 이 자리는 '인간개발연구원'만이 초대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연석 더벤처캐피탈 대표**

- C 시시한 모임은 싫다.
- E 이상적인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
- O 오래된 친구처럼 소중한 모임, 인간개발연구원 송년모임일세!

**김영미 (주)서스틴베스트 대표**

- C 씨앗을 뿌리고 추수의 기쁨과 수고를 아는 사람들이
- E 이곳 인간개발연구원 2011년 송년의 밤에 모였습니다.
- O 오늘 아름다운 시간에 다사다난의 2011년을 잘 보내시고 희망의 2012년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강선영 (주)에스와이코마드 대표**

- C 시대는 변화한다.
- E 이대로 멈춰 있다면 나는 죽어있는 것이다.
- O 오직 변화에 도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조혜현 한양여대 교수**

- C 시작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은
- E 이 시점에서
- O 오직 성공으로 가는 시작의 길이다.

**윤생진 창조경영연구소 사장**

- C 시대 때문에 속상했던 당신의 얼굴이 오늘 동짓날 생각나는군요.
- E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내 곁에 있기에
- O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군요. 사랑합니다, 영희 씨.

**이선구 (사)대한노인회 이사**

- C 시간 시간 사람나눔 빨간 밥차를 통해 연간 25만 명의 노숙인들과 홀몸 어르신, 장애우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 E 이 세상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덮히고 있는 사랑하는 저의 아내는
- O 오!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다운 천사입니다.

**전옥자 성로원 부원장**

- C 시간은 지나가지만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 E 이렇게 함께 가는 행복을 오늘 더 느낍니다.
- O 오늘 함께한 당신과 나는 동반자입니다.

**황광석 동북아평화연대 사무총장**

- C 시시콜콜 따지지 말고
- E 이리 와서 마음을 활짝 열러라.
- O 오! 21세기는 우리들이 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윤성미 프로매치코리아**

- C 시원하게 가라 2011년.
- E 이전 희망을 맞이할 때
- O 오라, 2012년이여!

**김상홍 단국대 석좌교수**

- C 씨앗이 자신을 희생하여 새싹을 키우듯이
- E 이 한 몸 조국의 발전을 위해
- O 오래도록 헌신하고 통일의 초석되리라!

**김인호 쉐리코리아컴퍼니 대표**

- C 씨앗 하나
- E 이쁜 날 양지바른 곳에 심었네.
- O 오랜 기다림, 꽃으로 피었네.

**박준석 글리프스 대표**

- C 시련을 극복합니다.
- E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O 오랜지 빛 꿈을 위하여 파이팅!

**황경호 원자력문화진흥원 이사**

- C 새롭고 희망찬
- E 2013년이
- O 오는 것을 기원합니다.

**양종관 남서울대 교수**

- C 시적이고 문학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은 '소통', '운수대통', '만사형통' 즉 3통이 깃듭니다.
- E 이제는 문화예술의 시대. 속히 깨달은 사람에게 행운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 O 오랫동안 구세대적인 사고 빨리 버리고 시대에 맞는 사고로 전환합니다.

**최정식 시민주의연대 공동대표**

- C 시험 없는
- E 이 세상이
- O 으면 행복시작

**김영호 삼익THK(주) 부장**

- C 삼익시 시작살이처럼
- E 이른 아침 눈비비고 곱박곱박 나왔는데~
- O! 언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지?

**한석 BDP코리아 팀장**

- C 시작을 올리는 자명종 소리에 일어나 뒤척이다가
- E 이크- 오늘은 목요일 강연을 듣는 날
- O 오-우 역시 인간개발연구원 소식은 언제나 새로워라.

**김민하 인간개발연구원**

- C 씨앗을 뿌렸습니다.
- E 이슬을 머금은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 O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우리 마음 속 희망의 씨앗입니다.

**정용달 인간개발연구원 팀장**

- C 시대를 책임질 사명, 미래를 이끌어갈 운명
- E 이 세상에 유일한 당신,
- O 오직 CEO 그대뿐입니다.

**최용준 인간개발연구원 주임**

- C Cheers!
- E Everyone
- O Okay?

**민선아 인간개발연구원 차장**

- C 시대에 필요한 지혜가 필요함
- E 이 세상의 CEO들이여- 인간개발연구원으로
- O 오시여 함께 나누시다!

## 평생학습시대 구축 17년, 국내 아카데미 대표브랜드로 성장

### 2011년 800여 회 교육컨설팅 성료

#### 〈교육컨설팅소식〉

■ 2011년, 73개 기관에서 600여 회 강연 열려



지식의 홍수로 일컬어지는 이 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개발 등 각 분야를 대표하

는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아카데미가 올해로 17년째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 장성아카데미를 효시로 하여 단체장과 공직자, 주민들의 성원과 참여를 통해 평생학습의 대표 브랜드로 명성을 얻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1년 초 구제역 파동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의 열기는 계속되어 2011년 한 해 동안 73개 기관에서 600여 회의 강연이 열렸으며, 11~12월 기간에도 50개 지역에서 127회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지난 11월은 고창군청에서 아카데미 첫 포문을 열었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역사로 읽는 춘향전”이란 주제로 고전과 역사에 관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9일 경주에서는 윤은기 중앙공무원연수원 원장을 모시고 “더 큰 대한민국, 생각의 틀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으며, 11월 14일 상주에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모시고 동반성장을 통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평창에서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세계인의 마음을 뒤흔들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천에서는 한비아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급 자원위원을 모시고 열정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29일 장성에서 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의 강연으로 2011년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마무리되었다.

■ **병영선진 아카데미 6주년 맞아, 아카데미에서 학습조직으로**  
군부대의 지식학습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또 사회적 트렌드 인식과 창



조적 발상전환을 위한 장으로 자리 잡은 병영선진 아카데미가 올해로 6주년을 맞이했다. 그간 병영아카데미는 정재계, 문화예술계의 명사들이 초청되어 경제경영, 안보뿐 아니라, 문화예술, 종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학습이라는 아카데미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군과 민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올 한 해 동안 총 35회 진행된 아카데미에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외 다수의 인사들이 군의 역량강화를 위해 강단에 섰다.

‘판에 박힌 사고를 벗어던지자’고 역설하던 금년새 지휘자에게서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사람들 곁으로 먼저 가깝게 다가서야 할 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6.25 전쟁 이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의 변화를 이야기 한 중앙공무원교육원 윤은기 원장에게서는 해외에서 펼친 청해부대의 아덴만여명작전의 성공을 예로 글로벌 강국 코리아로의 변모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게 6년여 간 병영선진 아카데미는 때로는 뜨거운 학습 열기로 때로는 잔잔한 감동으로 머리가 숙연해지는 분위기를 자아내 왔다. 국방부의 MND아카데미, 육군본부의 선진육군아카데미, 공군본부의 하늘사랑아카데미 등 병영선진화 아카데미가 앞으로도 군과 민간의 지식학습과 교류의 장으로, 더 나아가 아카데미를 넘어 군의 정규적인 학습조직으로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

■ **평생학습조직 구축으로 조직발전 기여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정기교육**  
평생학습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조직발전을 꾀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 정기교육이 2011년 한 해 교육을 종료했다.



크루셀텍 윌레특강에는 에에스더 에스더클리닉 원장, 허영호 드림앤어드벤처 대표 등이 강연에 나섰고, 리바트아카데미

에는 김창옥 퍼포먼스 트레이닝연구소 대표가, YPP아카데미에는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연단에 올랐다. 한진해운에서는 이근철 유아에듀 대표가 6개월 연속으로 직원영어특강에 나서 주목받았다. 공공기관 정기교육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김상홍 단국대 석좌교수가 청렴사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고, JDC와 함께 하고 있는 '글로벌아카데미'가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대학에서 각각 열렸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영권 세계화전략연구소장이 2011 중강연을 맡았으며, 제주대학에서는 성연미 봄온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자민 물방울나눔회 사무국장 등에 이어 서진규 희망연구소 소장이 중강연에 나서 도전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와 함께 경북도립대학과 함께하는 '술개들아카데미'에 김윤종 꿈희망미래재단 이사장과 김병조 조선대 초빙교수가 각각 연단에 올라 성공과 나눔, 그리고 명심보감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를 학생들에게 들려줬다. 서희태 지휘자는 전남지방우정청 직원특강에서 클래식과 창조경영을 주제로 강연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 YPP, 전력거래소와 교육개발협력 MOU 체결



국내 중견 플랜트 자동화 솔루션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 YPP(회장 백종만)는 12월 21일 한국전력거래소와 계통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

육개발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최초 민간 보호계전기 교육센터(Relay School)를 운영하고 있는 YPP는 향후 교육인프라 구축과 교과과정 운영을 맡고, 전력거래소는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 확보 등의 지원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된 계통운영 고급 기술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공동 협력은 국내 전력산업계의 오래된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활동의 비영리사업으로 추진된다.

### ■ 종로구, 지자체 중 최초 건설업 KOSHA 18001 인증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중)은 지난 12월 28일,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을 인증 받았다. 종로구



종로

청은 2010년 말 지자체 중 처음으로 코샤 인증을 신청했으며, 1년간의 심사 끝에 인증이 확정됐다. 코샤 인증을 담당하는 공단 관계자는 종로구를 시작으로 여타 지자체에 건설업 안전인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광진구, 2011 지방불가안정관리 평가 장려구 선정



광진구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지방불가안정관리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광진구는 지난 2007년부터 7회 연속 불가관리 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도 지원 받게 돼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 ■ 용인시, 2011 지자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수상



용인시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건전재정 운용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유재산 정보공개에 노력하고 효율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가 지방예산 효율화 사례 207건을 제출한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눈부신 성과다. 한편 용인시는 2010 도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징수 추진실태 조사에서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 달성군, 비슬산 자연휴양림 얼음동산 조성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외)은 2012년 2월 까지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얼음동산을 조성해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얼음동산 시설물은 높이 10~15m,

길이 200m로 얼음 방벽과 얼음동굴, 에스키모집, 고드름집, 얼음기둥, 얼음 미끄럼틀, 얼음 썰매장 등이다. 얼음동산에는 용의 나라 얼음조각을 만들고, 뽀로로를 얼음조각으로 만들어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과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 ■ 고창군, 중앙부처 22개 사업, 국비 1,039억 원 확보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일자리 7000개 창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인구 7만 명 달성을 목표로 매진한 결과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과 행정업무 평가 47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군은 올해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모두 2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03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2011 인간개발연구원 정기교육 운영현황

인간개발연구원은 2011년 한 해 동안 109개의 기관과 함께 800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으로 인연을 맺은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에도 더욱 좋은 교육으로 평생학습 시대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구분	기관명	교육명		
공공 기관 (15)	고흥군바르게살기협의회	명사초청특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특강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소통아카데미 1,2기		
	부천시설관리공단	월례초회 특강		
	시정교수구청장협의회	시정교수구청장 워크숍		
	우정사업본부	Post Academy 금융사업단 금융세미나		
	영등포치매지원센터	직원특강		
	전국대학협의회	전국대학 산학협력단장 워크숍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과장급 교육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과장급 교육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시글로벌아카데미 서귀포시글로벌아카데미 대학생글로벌아카데미 글로벌아카데미 읍면순회강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명사초청특강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워크숍		
	헌법재판소	임직원 청렴교육 강원지연본부특강 경기지역본부특강 광주지역본부특강 대구경북지역본부특강 경남지역본부특강 서울지역본부특강 인천지역본부특강 충북지역본부특강 제주지역본부특강 월례초회특강 대전충남지역본부특강 전북지역본부특강 전주출신지역본부 특강		
	기업 (23)	골든듀	혁신운동 발대식 특강	
		농협 제주시지부	직원특강	
		동양석판	노사화합특강	
		대웅제약	경남지역본부 특강	
		대한조선	승진자특강	
		독심카페	명사초청특강	
리바트		리바트아카데미 서울사무소 특강 대리점주 워크숍		
봄온커뮤니케이션		미디어스피치과정		
상성화재 대전유성 연수원		상성화재 보험설계사 특강		
성도이엔지		전직원 워크숍		
실버텍스		직원특강		
세아제강		신년 워크숍		
좋은강안병원		개원 6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하는 교양강좌		
좋은문화병원		개원 33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하는 교양강좌		
좋은삼선병원		개원 16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하는 교양강좌		
충남 (4)		대전시 서구청	서람이자치대학	
		부여군청	굿드래자치대학	
		서산시청	서산아카데미	
		아산시청	아산시민아카데미	
		경주시청	화백포럼	
		구미시청	아은아카데미	
		군위군청	삼국유사아카데미	
		김천시청	김천아카데미	
	경북 (11)	대구시 달서구청	행복아카데미 진로학습 특강 부부특강	
		대구시 달성군청	달성교양강좌	
		상주시청	상주아카데미	
			새내기공무원 특별교육	
			강남구여성단체협의회 상주방문특강	
			관광과 특강	
			직원특강	
울진군청		울진아카데미		
예천군청		예천아카데미		
청도군청		상그린아카데미		
청송군청	청송아카데미			
경남 (10)	거제시청	거제시민자치대학		
	거창군청	21C행복거창아카데미		
	부산시 서구청	서구미래아카데미		
	부산시 수영구청	수영정기총회 특강		
	울산시청	직원특강		
	울산중구청	중구행복아카데미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지방세-세외수입 업무연찬회		
		창원아카데미		
		진해아카데미		
창원시청	마산아카데미			
	명곡동 주민자치위원회 특강			
	이통장 특강			
	이통장 워크숍			
	친철실천결의교육			
하동군청	군민자치대학 찾아가는 군민자치대학			
함안군청	함안군민대학			
함양군청	함양군민자치대학			
전북 (2)	고창군청	21세기 고창미래포럼		
	정읍시청	시민이 행복한 특별강좌 고흥성공아카데미 간부공무원워크숍 지방의회개원 20주년 특강 이장 지역리더십특강		
전남 (10)	고흥군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구아카데미		
	광주시 동구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구아카데미		
	나주시청	나주세움시민강좌 서남권아카데미		
	목포시청	찾아가는 서남권아카데미		
	무안군청	여성주관기법식 황토골짜치미당		
여수시청	여수엑스포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			
완도군청	청해진회망강좌 농어민특강			
영광군청	여성주관기법식			
장성군청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함평군청	여성주간기법식			
충북 (2)	보은군청	보은아카데미		
	제천시청	푸른제천아카데미		
	지자체(59)	강북구청	독서동아리회원 특강	
		강서구청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	
		광진구청	광나루아카데미	
		송파구청	송파아카데미	
		종로구청	종로교양강좌	
		서울 (5)	가평군청	에코피아-가평 아카데미 에코피아-가평 찾아가는 아카데미
			강화군청	강화아카데미
			부천시청	복사골아카데미
			부천시 소사구청	찾아가는 청소년아카데미
			부천시 오정구청	월례초회 특강
		경기 (9)	부천시 원미구청	명사초청특별강연
			오산시청	신규공직자 워크숍 전직원 워크숍 직원 월례특강 방재단 특강
			용인시청	방재단 특강
포천시청			시정설명회 특강	
강릉시청			강릉비전 금융특강	
강원 (6)	양양군청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한일FTA특별교육 시민문화센터 개강식 특강		
	원주시청	어린이집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특강		
	정선군청	아리ारी 정선아카데미		
	철원군청	정선5일장 친절서비스 교육 녹색성장 교육		
	평창군청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찾아가는 평창아카데미 청소년 특강 공직자 특별소양교육 평창현장학습		
충북 (2)	보은군청	보은아카데미		
	제천시청	푸른제천아카데미		

# 회원이 가입 안내

## 회원자격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기업체 및 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직업인, 사회적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 또는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회원서비스 안내

### 1. 온라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  
[경영자연구회 후기, 회원칼럼, 회원소식, KHDI 웹진]
- KHDI 라이브러리(강연동영상, 녹취록 다운로드)
- 홈페이지  
[회원사 수상 및 경조사, 신제품 등 회원동정 게재 및 홍보]

### 2. 오프라인 서비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회원가 우대 및 면제, 강연CD, 녹취록 매주 우송, 경영도서 제공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회원커뮤니티 활동  
-친목과 교류를 위한 이종기업 협력 동우회 (이종1그룹, 다락회, 화목회, 인목회), 골프클럽(인경회), Young Ceo Forum, 차이나클럽,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무·유료 참석
- 국내외 시찰 Program
- 회원친선행사(찾아가는 CEO교실, 회원사방문, 송년파티 외)
- 정기 간행물 제공
- 기업 교육컨설팅

##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 심사 ▶ 연회비납부 ▶ 회원활동

서비스 구분	서비스 항목	특별 할인	법인 회원	세미나 회원	개인 회원	오디오 회원	온라인 평생회원	후원/나눔 회원
오프라인	회원혜택 적용 인원수	10인	5인	1인	1인	1인	1인	후원, 강연, 재능 기부 시 정회원 예우  ※본 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매주 목요일 개최)	면제/2인	면제/1인	면제/1인	회원가	비회원가	비회원가	
	회원 커뮤니티 가입자격	○	○	○	○			
	회원친선행사(무료, 유료)	○	○	○	○			
	기업소식 및 동정 홍보 (매거진, 이메일, 팩스, 유인물배포)	○	○	○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	○	○			
	국내외 산업시찰 참가비 할인	○	○	○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무료, 유료)	○	○	○	○			
	조찬세미나 강연 CD 매주 발송 정기 간행물 및 도서 제공	5개	3개	1개	1개	1개 (도서제외)	별도구매	
교육컨설팅(명사섭외, 연수프로그램기획 등)	○	○	○	○				
온라인	KHDI 라이브러리 아이디 부여(동영상, 녹취록 제공)	○	○	○	○		○	
	강연,후기 이메일 서비스	○	○	○	○	○	○	
회비	연회비/온라인 평생회원은 1회 납부	650만 원	390만 원	290만 원	1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 입금계좌: 하나은행 102-910003-99904 예금주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문의: 경영자교육팀 Tel. 02-445-1948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 소통아카데미 2기 수료

## ‘대화와 소통기법, 인성함양을 위한 인문학 강좌’

사회 구성원 간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 마련된 ‘소통아카데미’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2기까지 무사히 수료했다.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 개강해 30일까지 매주 1회 총 5회 강좌로 진행된 소통아카데미 2기는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김효석 김효석아카데미 원장, 황상민 연세대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신달자 작가 등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지성들의 강연을 통해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시민들 스스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1월 30일, 종강연과 함께 진행된 수료식에서 송석구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소통은 작은 나무를 심어 큰 나무로 키우고, 그 나무가 모여 산이 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가정이나 직장에서 웃으며 인사하기,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등으로 소통을 몸소 실천해 나갈 수 있다”며 평소 소통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만기 본원 회장도 인사말에서 “소통아카데미에 보여준 시민들의 호응에 놀랐다”며 “여러분들이 보여준 열정이 소통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위원장은 최연장자(손경식, 78세), 최연소자(김현민, 24세), 직장인(박동현, 남), 주부(정희, 여) 각각 1명에게 수료생들을 대표해 수료증을 수여했다.

소통과 대화에 필요한 기본 인성을 함양해 사회통합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사회에 소통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본원이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조남철)의 후원으로 개설한 소통아카데미는 지난 1기(9월 21일~10월 19일)와 2기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2012년에는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1, 2기 총인원 2000여 명 기록과 함께 방송대 TV채널인 OUN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은 소통아카데미 강좌를 요약 발표해 소개한다.



장만기회장의 인사말



2기 수료자 대표들과 함께



소통아카데미 2기 현장등록 모습



송석구 위원장의 인사말



송석구 위원장의 수료증전달



소통아카데미 2기 수료식

**1회차 / 11월 2일(수)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소통형 인재**



소통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소통의 단절, 갈등이었다. 세대 간의 갈등, 계층, 이념간의 갈등 등 갈등의 종류가 많다. 그런데 나는 이런 갈등의 원인이 너무 소통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갈등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나는 그것을 '원조갈등'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 실체를 밝혀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만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갈등의 원인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토록 많은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인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재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스펙 갖추기에만 바쁘다. 스펙은 겉 포장지에 불과하다. 겉 포장지는 푸는 순간 쓰레기가 된다.

이제는 정말 실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진정한 실력은 튼튼한 기초 지식, 유연한 사고력, 호기심, 모험심, 심적 탄력성 등이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타인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소통하는 사람은 전문성, 창의성, 인성 세 가지를 모두 지녔다. 전문성은 평생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땅 같이 단단한 기반을 쌓는 의미로 땅 지(地)를 쓴다. 창의력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유하는 능력으로 하늘같이 활짝 열린 의미로 천(天)을 쓴다. 인성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人)이다. 그래서 소통하는 인재는 '천지인'이다. 소통하는 인재 천지인은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생명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창의적인 일을 하는 순간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천지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글이다.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글이 아니라 '유일하게 과학적인 글'이다. 한글이 수많은 석학들로부터 칭송받는 이유는 우리 한글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역사상 인간이 머리에서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것 중의 가장 훌륭한 창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글을 발명해낸 한국 사람이야말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천지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2회차 / 11월 9일(수) 김효석 김효석아카데미 원장**  
**소통을 부르는 유쾌한 대화법**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설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상대방의 귀를 열어줘야 한다. 바로 '궁금의 기술'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얘기가 궁금하고 듣고 싶게 만들어야 설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열어줘야 한다. '칭찬의 기술'이다. 상대방에게 칭찬으로 접근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며, 마음이 열려야만 설득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잘해야 한다. 선물은 꼭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평소에 사람들을 챙겨주고 도와주는 마음의 선물도 선물이다.

남을 설득하고 그 사람 마음을 빠른 시간에 열기 위해서는 인사를 잘해야 한다. 인사를 할 때도 기술이 있다. 첫째, 인사를 할 때는 오버를 해야 한다. 내가 100을 말하면 상대방은 절대로 100 모두를 알아듣지 못한다. 최소 150은 말해야 상대방이 내가 말하고자 했던 100을 알아듣는다. 인사도 오버하면서 해야 상대방이 내 인사를 알아주는 것이다.

둘째, 문자로 자주 인사를 해야 한다. 문자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자주 인사를 해서 내 존재를 상대방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셋째, 인사를 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한다. 진심어린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눈을 바라보며 인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눈과 같이 표현을 해야 한다. 말만으로도 표현해서도 안 되고, 눈만으로도 표현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대화를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팁이 있다. 우선 상대방의 말에 답할 때 아무 생각이 없거나 답변이 마땅치 않을 때는 상대방의 말을 복사해라.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복사법은 상대방이 말을 끊임없이 하게하고, 상대방이 결론을 내게 한다. 이게 바로 소통이고 배려이다.

다른 하나는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이다. 내가 칭찬을 많이 하면 상대방도 나를 칭찬한다. 칭찬을 많이 하고 인사를 많이 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고, 결국 행복해지게 된다. 중요한 점은 나 자신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 나에게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남도 칭찬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설득과 대화는 소통의 첫걸음이자 뿌리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듯 올바른 설득과 유쾌한 대화로 소통이 통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바란다.

**3회차 / 11월 16일(수)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짝과 사랑, 그리고 결혼**



한국인들의 짝을 찾는 심리, 결혼에 대한 심리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당신의 짝이라고 생각하는가? 살면서 '왜 사는가', '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물음에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것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생활을 꿈꾸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는 것'으로 여긴다. '결혼생활은 그냥 참고 사는 것'이라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 후 여성들은 배우자인 짝이 아니라 자녀를 짝으로 생각하고, 남성들은 일을 새로운 짝으로 여기고 사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짝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우리는 결혼 후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바라는 결혼이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과 어떤 결혼생활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결혼할 때 상대의 사회적 조건이나 레벨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가지면 내 삶이 좀 더 돋보일 것이라는 심리 때문이다. 또 결혼은 '그냥 살아가는 현실' 정도로 생각하는 심리가 있다. 내 수준에 맞거나 내 수준을 높여줄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면 '나만 참으면 만사형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결혼과 짝에 대한 심리코드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맞춤형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 조건을 맞춘다는 개념이다. 둘째는 감성형으로 처음 보는 순간 불꽃이 튀었다는 사람들이다. 셋째는 패밀리형으로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을 만나보니 괜찮아서 결혼하는 경우이다.

맞춤형은 최근 10년 사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결혼의 형태인데, 맞춤형이 늘어날수록 이혼율도 덩달아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 그러나 맞춤형도 서로 조건을 맞춰 결혼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면 순탄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맞춤형과 감성형이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서로 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성형의 결혼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이것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좀비형으로 살아간다는 점이다. 사랑의 감정은 최대 2년을 넘기 힘든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짝이나 결혼은 가슴 뛰는 낭만을 생각하고, 좋은 조건에서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과 서로 공감하고, 그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찾는다 해도 그 결혼은 좀비와 같은 생활일 뿐 행복한 결혼생활도 진짜 짝과 함께 하는 결혼생활도 아니라는 것이다.

**4회차 / 11월 23일(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귀뚜라미의 소통과 지식의 통섭**



故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를 입고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면 전 세계가 자지러졌다. 게다가 그 제품을 사기 위한 행렬이 밤을 새워 이어졌고, 삼성과 LG는 뒤늦게 비슷한 기계를 만들어냈다. 아이폰, 아이패드를 위시한 애플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마치 사이버 종교에 홀린 사람들처럼 열광한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라는 영화의 컴퓨터 제작진에는 한국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90% 이상을 한국이 하청 받아 제작한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은 <아바타>와 같은 영화를 기술적으로는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나가지는 못한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지만 하청 받은 일을 할 뿐 아이폰이나 아바타 같은 창의적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과연 아이폰, 아바타와 같은 창의적인 산물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컴퓨터에 능통하고 과학기술에 능통한 것 외에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이 어우러져야만 한다. 지식의 홍수라 불리는 현대사회에서는 확고한 본인의 전문분야 구축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단지 자신의 우물만 파고 있어서는 21세기에 환영받

지 못한다.

튼실한 자신의 우물을 가진 이가 다른 우물을 찾았을 때 그 우물의 주인과 어울려 거침없이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기를 이 시대가 바라고 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는 시대가 되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곤 한다. 대한민국은 향후 경계를 넘나드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만 한다.

통합이란 물리적으로 섞이지 않는 것들을 섞어놓은 상태를 말하며, 대학에서 학과들이 학부로 통합되는 것이 실례이다. 반면 융합이란 수소 분자와 산소분자가 만나 물이 되듯 서로 다른 것들이 합쳐져 새로운 형태가 되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기술 간의 융합을 예로 들 수 있다.

통섭이란 서로의 형체를 유지한 상태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산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지과학을 예로 들 수 있다. 인지과학은 21세기 인간의 뇌를 연구하기 위해 뇌과학자, 기계공학자, 진화생물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등이 함께 연구하다가 발생한 학문으로 인지과학 태동 이후에도 심리학이나 철학들은 건재하다.

통섭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통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질적인 계층간의 소통이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원천적인 소통이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통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 소통을 이뤄내는 방법은 끊임없는 노력 외에는 없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담을 고치며'라는 시에서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고 했다. 한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과 물리학, 법학 등 학문이 따로 존재하는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작금의 현실은 각기 다른 계층간의 존재를 서로 인정하고 담을 낮추어 서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통섭을 이뤄내야만 한다. 무한한 노력을 통해 다른 이를 끌어안으려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우리는 잘 할 수 있다. 우리는 비범함을 만들어낸 민족이다. 쉬는 것 하나는 세계 제일이다.

**5회차 / 11월 30일(수) 신달자 작가 / 숙명여대 객원교수  
소통의 길 화해의 길**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나는 항상 청군이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백군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 사회에 나와서도 나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도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있었던 것 같다.

사회에 나와 보니까 내 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른의 세계는 '내 편 이겨라' 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도 냉혹한 사회에서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 대결자로서의 성숙한 사회가 아닌, 대결을 빼고 온전히 화해하는 소통, 화합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고민할 문제이다.

인간은 모두 다 정서적 허기가 있다고 한다.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많은 소통을 해서 마음이 편안해져야 한다. 침묵은 금이 아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성적이라 말을 가슴 속에 쌓아놓는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결국 사회와 국가 안에서도 굳은살을 만든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굳은살을 없애야 한다. 부드러운 사회, 말하는 사회, 웃는 사회, 사랑하는 사회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더 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어느 때부터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숨을 쉬게 되었고, 잘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부터 우리의 흥과 신바람은 사라졌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바람과 흥을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도 가망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 가족이고, 한 핏줄이고, 혈통이고, 혈육이라고 해서 기다렸고, 기다림 끝에 희망을 맛보았다. 가망 없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미국에는 실패연구소가 있다고 한다. 사실 우리에게서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를 사랑함으로써 결국은 또 하나의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었다. 이 세상에 안 되는 법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동력이 있다. 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우리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다. 6.25 전쟁 후 6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는 나라이다. 우리가 합치면 2002년처럼 월드컵 4강에 들 수 있고, 승리도 할 수 있다. 운과 행복은 절대로 없다고 하면 안 오는 물건이다. 우리가 인정할 때 운과 행복이 오는 것이다.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까닭은 우리의 역사와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모든 눈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키우고, 그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과 도전이 되고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YPP(주) 'YPP아카데미' 12월 19일(월)  
**서비스에 승부를 걸어라**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 및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우리사회 평생학습체 제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계통보호 제어분야의 플랜트 자동화 · 엔지니어링 서비스부문 중견업체인 YPP(회장 백종만)와 본원이 2007년 3월 개설한 'YPP아카데미'는 급변하는 시대에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 소양함양을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적자원은 물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최초로 민간 보호계전기 교육센터(Relay School)를 운영하여 국내 계전기, 설계엔지니어링, 실무 담당자 등 관련 산업계의 인력양성과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YPP는 향후 아카데미를 통해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로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12월 19일, “서비스에 승부를 걸어라”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 조관일 대표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조관일 대표

1949년 생으로 강원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 경영학 석사, 강원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농협중앙회 상무를 거쳐 강원도 정무부지사,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가공인 1급 사회교육 전문가로 공공기관, 기업체, 지자체, 대학 등에 출강하고 있다. <헝그리정신(다시 뛰자)>, <서비스에 승부를 걸어라>, <1인 혁명이 되어라> 등의 저서가 있다.

‘서비스에 승부를 걸어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비스가 기업흥망의 승부수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말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근무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의식이 확고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강조해봤자 겉치레에 불과하고, 자칫하면 그 사람 자신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신경성 질환을 앓게 될지도 모릅니다.

## 회사에 '충성'하라

내일 당장 당신이 직장을 떠나는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지금' 있을 때, 있는 동안은 확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상사에게 충성하고 회사에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쓴 책 중에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게 히트를 친 책입니다. 그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머리 좋고 재주 있고 똑똑한 사람보다 성실하고 충성스런 사람을 기업이 선호하고 상사가 좋아함으로 '비서처럼' 충직한 직장인이 되라는 것이 그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은 젊은 직장인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아주 나쁜 책'이라고 혹평을 한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나쁜 책이 어찌하여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나중에 나는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책이 '상사가 부하에게 사주고 싶은 책' 상위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생각과 팔로워의 생각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사는 충성을 간절히 원하는 데, 팔로워들은 '충성'을 구세대의 잔재처럼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충성'에 대하여 뼈뚫한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은 절대로 조직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크게 성장하려면 회사와 상사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은 구세대적 가치이거나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발달할수록 충성의 값어치는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충성심으로 확실하게 무장하고난 다음에야 비로소 '서비스 정신', '고객 만족'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감시망 사회(Surveillant Networking Society)에서의 정도경영

오늘날의 시대는 '고객품귀현상'이 나타납니다. 고객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경쟁자가 많아짐으로써 고객의 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회사 YPP가 다루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완전 독점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고객이 YPP의 고객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경쟁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업이 좁아진다면 다른 업체가 뛰어들어 경쟁하게 됨으로써 독점적이던 고객이 나뉘게 되고, 그럼으로써 고객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며, 나중에는 품귀현상마저 빚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설령 고객의 품귀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탁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입니다. 즉, 잘 되는 기업에는 점점 더 고객이 모이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고객의 발길이 끊

어짐으로써 망하게 됩니다.

저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되고 고객(피교육자)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잘 되는 강사는 강사료가 고가(高價)이면서도 오히려 고객이 넘쳐나고, 반대로 강의를 잘못하게 되면 강사료를 낮춰도 고객은 사라지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을 일컬어 SNS시대(또는 사회)라고 합니다. Social Networking Service시대, 즉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의 위력은 막강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뜨게 되면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강의 자료를 만들다가 우연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로 SNS를 입력시키기 위해 자판을 두드렸는데, 실수로 영어로 전환하지 않고 그냥 한글 버전으로 두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눈'이라는 글자가 찍혔습니다. 그 순간,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눈'이라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SNS를 달리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Social Networking Service'가 아니라 'Surveillant Networking Society'라고 말입니다. 번역하자면 '감시망 사회'라는 의미가 되는데 '눈(目)'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NS시대란 사방에서 감시하는 사회(Surveillant Networking Society)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든다



YPP사옥 전경

면, 알게 모르게 고객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감시하고 있는 사회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이런 시대, 이런 사회에서 거뜬히 살아남는 길은 깨끗하게 처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시비에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업 경영이 투명해야 하고 특히 서비스에 탁월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어떤 감시망이 작동하더라도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라면 당연히 경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 영업맨 정신으로 무장하라

여러분들은 일의 성격상 은행원이나 항공사 승무원 같은 접객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칫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나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세상에 서비스 정신이 필요 없는 직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서비스 마인드를 갖춰야 하며 한발 더 나아가 ‘영업맨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영업맨 정신’이라면 언뜻 ‘세일즈맨십’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맨 정신은 세일즈맨십이 아닙니다. “나는 기획부서에 있으니”, “나는 제품 개발부서에 있으니” 영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영업맨 정신은 말 그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어디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영업’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업맨 정신’입니다. 영업이란 즉, ‘파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은 팔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라도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야 하며, 그러려면 영업맨 정신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제품 개발부서에서 일한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의 영업맨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고객이 선호하고 좋아할 물건, 잘 팔릴 상품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발부서 근무자의 영업맨 정신입니다. 당신이 기획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면 좋은 경영방침과 사업계획을 세워서 고객으로부터 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영업맨 정신이며, 일선에서 영업을 하는 세일즈맨들을 잘 도와주는 것 또한 영업맨 정신입니다.

대개 이공계열의 사람들은 ‘서비스’라고 하면 거부감을 갖는 수가 많습니다. 서비스는 서비스맨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영업맨 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고객에게서 걸려온 전화 하나를 잘 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회사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고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전화를 잘 받는 것도 서비스를 생각하는 영업맨 정신이 됩니다.

수년전 114 안내에 전화를 걸어보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씁스럽다고 하지만 사실

114는 그 멘트 한 마디로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전화 응대 용어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가 기업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서비스 정신, 영업맨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예전에 내가 농협중앙회에 근무할 때, 서울 양재동에 있는 전산본부의 사장을 했습니다. 직원 수가 800여 명에 달하고 1년간 구입해야 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4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업계에서는 내가 영업을 중요한 타깃인 셈입니다.

그때 수많은 영업사원을 만나봤는데 주는 것 없이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웬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대단한 차이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인사성 여부, 명함을 주고받을 때의 매너 따위가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짜리 거래를 성사시키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사란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서비스나 영업을 그런 분야의 근무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돌리지 말고 모두들 떨쳐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YPP의 앞날이 보장됩니다.

### ‘Wow’를 부르는 멀티가 돼라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왕 서비스를 하고 영업을 할 바에는 탁월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와우!”라며 감탄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이 목표로 삼는 경영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Wow!”라는 감탄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명 ‘Wowing Management’입니다. 이 ‘Wow’에 당신을 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회사로부터 감탄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고객으로부터 감탄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부하직원들로부터 감탄을 받는 상사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할지 판단이 설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재미있는 이론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멀티어십(Multiership)>입니다. 이것은 영어사전에 없는 단어로 내가 만든 신조어입니다만 ‘Multiership’이라는 영어표현에서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Multi에서 이미 눈치 챌겠지만 오늘날에는 이것저것 모두 다 잘 할 수 있는 멀티 역량을 갖춘 사람이 인재입니다. 예전에는 한우물만 파는 전문가를 가리켜 스페셜리스트라고 치켜세우며 좋아했지만 융·복합, 통섭의 시대에는 한 가지만 잘 하는 전문가로는 시대상황에 적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아무쪼록 여러분도 멀티 역량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멀티 역량 중에 핵심 역량의 하나가 바로 ‘서비스’입니다. 아무쪼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승부를 걸으셔서 여러분의 회사가 크게 번영하게 되고 바로 그 밑바탕에 바로 당신의 서비스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 당신은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2011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로, 또는 나쁜 일로 세상을 바꿔놓고 떠났다. 한반도로 국한해서 보면 포스코를 창설하고 한국을 철광왕국으로 세워 놓고 간 박태준 회장은 좋은 일로, 독재 자로서 북한을 세계 최빈곤국가로 전락시키고 2400만 국민을 빈곤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간 김정일은 나쁜 일로 세상을 바꿔놓고 떠났다.

뉴스위크 연말호(2011. 12. 28-2012. 1. 4)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꿔놓고 떠난 이상주의자들을 “그들은 새로운 문을 열고 길을 닦은 뒤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는 진한 아쉬움으로 표현하며, 그들이 남기고 간 유산을 독자들에게 소개했다.

2011년 세상을 동진 17명의 위대한 지식인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지면의 제한으로 몇 명만 소개해본다.

대니얼 벨은 91세의 학자였다. 대다수 지식인들은 하나의 큰 개념만 설파하지만 허버드대 교수 벨은 많은 이론을 내놓았다. 그는 '이데올로기의 종언(The End of Ideology)'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을, '후기산업사회의 도래(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에서 서비스 경제의 부상을 예견했고,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을 시의 적절하게 간파했다. 이제 그가 떠나고 없으니 누가 앞으로 다가오는 큰 흐름을 알아차릴까?

왕가리 마타이는 71세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다. 케냐의 환경운동가, 여권운동가, 정치운동가인 마타이는 수십 년 동안 환경파괴와 싸우고 부패에 맞서 구타와 옥살이를 당했다. 그녀의 녹색지대운동(Green Belt Movement) 덕분에 아프리카에 나무 3000만 그루가 심어졌다. 2004년 그녀는 “민주주의, 인권, 여권을 포용하는 통합적 방식(holistic approach)을 지속가능 개발에 적용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시드니 허먼은 92세의 오디오 혁신가였다. 박학다식한 학자(polymath), 교수이자 자선사업가인 허먼은 91세에 뉴스위크를 인수했다. 그 전까지 그는 오디오 혁명에 일생을 바쳤다. 그의 회사는 '하이-파이'를 도입했고, 이어 스테레오 리시버를 선보였다. 그는 90줄을 넘어서도 여전히 활력을 잃지 않았다. “매일 아침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즐기겠다는 각오로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루시안 프로이트는 88세의 화가였다. 인간의 형체(human form)를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는 그는 어린이든 여왕이든 자신의 앞에 모델로 앉으면 철저히 해부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손자인 그는 추상미술이나 팝아트의 일시적인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구상회화를 파고들어 당대의 손꼽히는 일류 화가가 되었다.

스티브 잡스는 56세의 발명가이자 애플의 창업자였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세계 곳곳의 애플 매장 앞에서 철야 간이 분향소를 마련하고, 마치 록스타가 세상을 떠난 듯 슬퍼했다. 그는 기술, 음악, 커뮤니케이션에 혁신을 가져온 진정한 미국의 천재였다. “그는 우리 개개인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를 기리며 말했다.

시어도어 J 포츠먼은 71세의 자본가였다. 포츠먼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사고를 선도하는 금융가이자 자선사업가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뉴욕의 억만장자로 사모투자(private-equity investing)를 개척했으며, 1980년대의 차입자본 인수(leveraged-buyout) 붐을 부채질 했다. 그는 또한 정크본드(junk bonds,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의 위험성을 적극 경고했다. “허용되는 위험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지는 고삐 풀린 과잉의 시대”를 예고했다.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박완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주목받았다. 한국문학작가상,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엄마의 말뚝' 등이 있다. 6.25전쟁과 분단, 물질중심주의 풍조와 여성 억압에 대한 현실 비판을 주로 다뤘다. 1993년부터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친선대사로 활동했으며, 1998년 문화관광부가 수여하는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끝으로 고빈드 코라나는 89세의 유전공학자였다. 인도 오지 마을의 유일하게 글을 읽을 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난 코라나는 46세 때 노벨의학상을 받았다.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MIT 공대 연구팀을 이끌고 최초의 인공유전자(artificial gene)를 만들어 내고, 로돕신(rhodopsin,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단백질) 유전자를 합성하고 유전공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인류 역사는 변화의 역사다. 변화는 초고속으로 세상을 바꿔가고 있다. 'Change or Die, 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새해 2012년을 맞았다. 이미 세계는 2012년에 World Shock이 예고되고 있다. 나는 무엇으로 세상을 인간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자여, 먼저 그대 자신을 바꿔라”라고 외친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2500년 전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의 독자 여러분! 인류의 미래는 큰 꿈을 꾸는 자들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변혁의 비전가가 되어 2012년을 희망찬 미래로 전화시키는 해로 만들어 갑시다. **KH&M**

# 동아시아역사(東亞細亞歷史) 왜곡(歪曲)의 시정(是正) 6



좌:천왕목옹(唐 天王木俑 張雄夫婦墓 688 年作 阿斯塔那) 우:진모무사도옹(唐 鎮墓武士陶俑 史道洛夫婦墓 固原)



당(唐) 문관(文官) 도궤배옹(陶跪拜俑) 예종(睿宗 r.684, 710-2)의 장자 이현(李憲) 묘 석서성 포성(蒲城) 헤릉(惠陵)

수·당 왕조가 중국대륙을 통일한 7세기 초 이후, 한족 전통의 묘지 수호신 상들은 점차 불교의 사대천왕(四大天王) 상으로 바뀌면서 극적으로 과장된 '야만족' 형상으로 제작 되었다. 전통 유교를 대체해 외래 종교인 불교가 총체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한족들이 외래 정복자의 막강한 힘을 빠르게 자각해 가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당 군대의 주력은 비-한족 "야만인"들이었고, 비-한족 장군들이 군의 최고직을 차지해 지휘를 하고 있었다. 내세의 수호신 형상들이 현세의 수호자들의 형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다.



● 홍원탁 교수

칼럼 내용의 근거가 되는 관련 기초 자료와 2차 자료를 검토하고 싶은 독자께서는 <http://www.HongWontack.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만주 선비(鮮卑)족의 모용선비 전연(慕容前燕 337-70), 탁발선비 북위(拓拔北魏 386-534), 거란선비 요(契丹遼 907-1125)와 동만주 여진(女眞)족의 금(金 1115-1234) 등 초기의 정복왕조들은 북 중국만을 정복하고 통치를 했지만 당시는 북 중국이 바로 중국을 의미했고, 남 중국은 미개한 변방 오지의 성격이 강했다. 피난을 내려온 한족 엘리트(僑民)에 의해 남 중국이 오늘날의 중국과 같이 개발되자 몽골족의 원(元)과 만주족의 청(淸)은 중국대륙 전체를 정복·통치했다.

만주 출신 정복왕조 창건자들은 우선 자신들 고유의 부족적 전통에 입각한 국민개병(皆兵) 병민일치(兵民一致) 군사조직을 중앙 집권화하고 독점했다. 동시에, 피정복 한족은 소위 "한족을 한족으로 다스린다"는 이한치한책(以漢治漢策)에 입각해 한족 관료들을 임용하여 유교적인 관료 제도를 가지고 다스렸다. 신생 국가에 충만한 폭발적인 기세를 몰아 이와 같은 2원(二元)적 통치조직을 제도화하여 수적인 열세와 통치기구 부재라는 취약점을 모두 극복하고 정복왕조를 수립할 수 있었다. 군사력의 기반인 부족 전통의 와해는 바로 정복왕조의 몰락을 의미하게 된다.

서만주 모용선비는, 352년에 북 중국을 점령하기 이전에, 요동 주변에 거주하던, 혹은 본토에서 피난을 해 온 한족 전직 관료, 학자 등을 포섭·임용하여 피정복 한족 농민을 다스리는 중국식 관료조직을 완비했다. 부족 전통의 군대는 중앙집권화되고 최고 통치자의 형제, 아들, 조카들이 지휘했다. 본격적인 정복왕조를 시작한 탁발선비는 부족(國人)과 한족을 격리하여, 국민개병 군사조직으로 황제 직할 중앙군과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북부초원 부족들의 거주 지역은 부족식(國制)으로 다스리고, 북 중국 평원의 한족 밀집 지역은 토착 대지주 호족들로부터 선발된 하급 관리들이, 선비 세습귀족의 지휘를 받으면서 한족식으로 다스렸다. 동시에, 정복왕조 고유의 탈-유교 이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외래 종교인 불교를 적극 장려했다. 수와 당은 전한-후한 때 비정기적 천거-임용 관행을 보조했던 시험제도를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과거(科擧)제도'로 만들어 정복왕조의 세습귀족 지배층이 한족 송-명 왕조에 와서 대지주 사족 출신의 사

대부 지배층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제도적 촉매 역할을 했고, 1905년까지 내용상의 변화를 거듭하며 중국대륙의 통치 제도를 상징하게 했다. 거란선비 요 왕조는 별도의 명칭을 가진 2개의 정부 조직을 가지고 부족과 한족을 분리 통치하면서 거란족이 황제직할 오르도 군대와 부족단위 군대를 모두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통치체제로 진화시켰다. 동만주 여진족 금 왕조는 부족 전통에 입각한 병민일치 범-사회군사 '맹안-모우케' 체제로 부족을 모두 조직·동원하고, 정복한족은 요 왕조보다 확대된 과거시험으로 선발된 한족 관료를 통해 다스리는 체제로 진화시켰다. 몽골족을 포섭한 범-만주 청 왕조는 여진족 금 왕조보다 한층 더 부족적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중앙 집권화된 팔기(八旗) 군사조직을 확립했다. 정복왕조의 충성스런 협력자로서 한족을 통치할 한족 관료와 향촌 지도자들을 선발하는 청조의 과거제도는 한족 송-명 왕조보다도 대지주 사족들을 한층 더 정주도학(程朱道學) 틀에 얽매는 최정적 진화 형태가 된다. 정복왕조에서는 유교적인 과거제도가 이한치한(以漢治漢)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사머니즘이 가미된 불교를 숭상하는 세습귀족의 지배가 계속되었다. 1635년, 청 태종은 만주족과 동일한 형태로 몽골족 팔기군을 편성했고, 1637-42년 간에는 요하 주변에 거주하는 한족과 항복한 명나라 군사를 동원해 한군 팔기(漢軍八旗)를 편성했다. 1644년, 만주족, 몽골족, 요동 한족으로 구성된 15만여 명의 팔기군은 북경을 함락시키고 중국본토 전체를 정복한 다음, 18개의 전략 요충지에 한족 주민과 격리되어 가족들과 함께 주둔했다. 만주족과 동일한 대접을 받았던 한군 팔기병들은 대부분 만주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했기 때문에 정복 초기에 대거 중앙 관료로 임용되었다. 요동 지역의 한족 정착민 후예들이 사용하는 중국어 방언, 즉 말타이 계통 언어의 영향을 크게 받아 만주족 귀에 익은 요동한족 팔기군의 언어가 북경으로 반입되어, 한족을 다스리는 정복왕조 관리들이 사용하는 언어(北京官話)가 되었고, 중앙 관료로 출세할 꿈을 가지고 진사(進士) 시험을 준비하는 한족 지식계급의 필수 공용어가 되는 과정을 거쳐 현대 중국의 공식 공용어(Mandarin, 普通話)가 된 사연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 ‘카본’, ‘세라믹단열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모간이 있습니다.



## Thermal Ceramics

세계최초 바이오슬루브 웰빙 단열재(친환경)

Superwool, 세라믹화이버, 세라믹보드,  
파이로블럭 모듈 외



## Engineered Carbon

첨단 카본분야의 리더

초고순도 Glassy Carbon 함침 및 코팅,  
Graphite 제품, Carbon Felt 외



## Electrical Carbon

카본이라면 ‘가람카본’

산업용 카본브러쉬, 집전자용 카본, 슬립링 외



## Graphite 열교환기

세계적인 흑연 열교환기

Graphite Shell & Tube Heat Exchangers 외



## 시간을 이기는 피부과학, 그 다음은 뭘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해도 당신의 아름다움은 변치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는 슈잔드린 추출 기술, 이데베논, Lift-up 세럼 등의 항노화 기술로 피부 시간을 멈추게 하는 과학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콜마의 모든 기술은 시간과 싸우는 항노화 기술과 함께 누구보다 빠르게 당신을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왔듯, 오늘도 한국콜마는 다음 단계의 새로운 피부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변화, 한국콜마**

